

2016년도 지역기상담당관 활동 우수사례집



2016년도

지역기상담당관 활동 우수사례집

Chapter 01

02 수도권기상청 기후서비스과
수도권 지역기상담당관, 비상(飛上)하다!

07 수도권기상청 예보과
Give and Take, 자르고 나누기

Chapter 02

11 부산지방기상청 기후서비스과
기후변화 교육 로드맵이 알려드립니다.

16 부산지방기상청 예보과
My Zone 해상사고 0 도전!!!

Chapter 03

21 광주지방기상청 기후서비스과
지역민의 안전과 지역발전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상생을 말하다

25 광주지방기상청 목포기상대
Anyone, Anytime, Anywhere with 목포기상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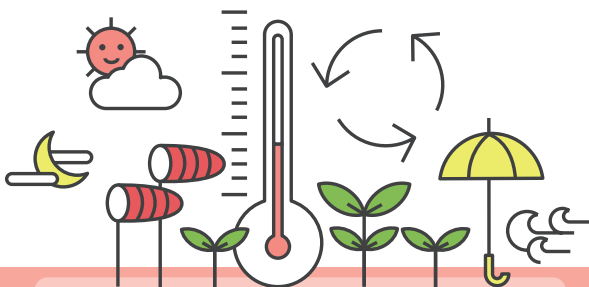
Chapter 04

30 강원지방기상청 기후서비스과
간막이를 없애고 함께하면, 효과는 UP! 부담은 DOWN!

36 강원지방기상청 춘천기상대
희망이 강물처럼 흐르는 소통하는 춘천기상대 지역기상담당관



- Chapter 05** **40** 대전지방기상청 기후서비스·예보·관측과 전국~~체육대회(제97회)와 함께한 12일 간의 여정
- 44** 대전지방기상청 기후서비스과 배려가득, 기후변화 이해확산 교육의 첫걸음
- Chapter 06** **49** 제주지방기상청 기후서비스과 공감·소통·협업 三多를 담다.
- 55** 제주지방기상청 예보과 제18호 태풍 ‘차바’(CHABA)를 잡아라!
- Chapter 07** **59** 대구기상지청 기후서비스과 2016 대구기상지청 ‘기후변화를 품다’
- 65** 대구기상지청 관측예보과 위험기상 대비뿐만 아니라 불안감에 지친 마음까지 함께하겠습니다.
- Chapter 08** **69** 전주기상지청 기후서비스과 전북 농업인이 즐거운 기상기후서비스
- 72** 전주기상지청 기후서비스과 전북지역 기후변화 대응지원 서비스
- Chapter 09** **75** 청주기상지청 기후서비스과 기상정보의 새 변신, 이젠 모두가 One하는 세상!
- 80** 청주기상지청 관측예보과 충청북도 날씨 협업 와우! WOW(Weather CO-Work)





수도권 지역기상담당관, 비상(飛上)하다!

- 힘든 일도 힘들게 느껴지지 않는 비밀 -

수도권기상청 지역기상담당관
기후서비스과 기상서기보 박선민



“

수도권기상청이 신설된 지 2년이 되었다. 직장에서도 2년차가 되면 뭔가 발전이 있듯이 수도권청도 많은 발전이 있어야 한다는 각오로 2016년 지역기상담당 활동을 시작하였다. 작년에는 지역기상담당관 활동을 통해 수도권기상청을 알리고 지역 수요조사를 통하여 기상기후서비스를 위한 기반을 다졌다면, 올해는 기상기후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고 모든 분야에서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고자 다짐하였다.

”

★ 활동요약

한반도의 중심, 수도권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50%가 모여 있어 기상기후서비스 요구가 많은 곳이다. 작년에는 수도권 전역 34개 지자체를 방문하여 기상기후서비스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올해는 그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수도권 지자체 및 지역민이 요구하는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계획하고 수행하였다. 먼저,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교육하였으며, 두 번째로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졌다. 세 번째로 지역별로 맞춤형 기상기후서비스를 위해 지자체 및 지역민을 만나고 그 요구사항 충족을 위해 바람길 및 건강자외선 연구, '데이터로 보는 수도권의 기후변화 분석집' 등을 발간하였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손에 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온라인 활동도 병행하여 수도권 지역 기상·기후변화를 알리는데 빈 곳이 없도록 날개 단 듯 비상(飛上)하였다.

수도권 지역기상담당관, 날개 달고 비상(飛上)하다.

수도권은 서울을 비롯하여 인천과 경기도가 위치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50%가 살고 있다. 도시와 인구가 많은 만큼 기상기후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수요 또한 많다. 2015년은 기상기후서비스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면 2016년은 발전한 기상기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다. 먼저, 다양한 계층을 위한 기상기후교육을 하고, 다음으로 국민의 직접 참여를 유도하며, 세 번째로 지역별 맞춤형으로 제공하며, 마지막으로 온라인을 통하여 더욱 많은 국민에게 기상기후서비스를 확산한다는 것을 목표로 했다. 수도권 지역기상담당관은 수도권 전 지역을 부지런한 날갯짓으로 비상(飛上)하였다.

‘유아에서 어르신까지’ 다양한 계층을 위한 기상기후교육

수원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과 협업으로 진행하는 초등생 대상 ‘기후변화, 그것이 알고 싶다’, 도서지역에 사는 청소년 대상 ‘섬마을에 찾아가는 날씨 선생님’,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에 따라 운영된 ‘내안의 씨앗 찾기’, 방학을 이용하여 운영한 ‘여름방학 날씨 교실’ 등 유아에서 고등학생까지 다양한 어린이 및 청소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특히, 작년에는 도시에 사는 학생들을 위한 교육만 했다면, 올해는 도서지역(백령도, 연평도, 대청도)의 7개 학교를 찾아가 기상기후 교실을 열고 기후변화 이해와 기상청 진로체험교육을 하여 기상직업에 대한 흥미를 가질 수 있게 하였다.

실버세대를 위한 기후변화 교육 ‘해피실버 교육’도 운영하였다. 기후변화에 따른 노년층 건강관리법 및 기상청 생활기상정보 문자서비스를 소개하였다. 과거를 경험한 실버세대들은 과거와 현재의 한강의 모습 변화 사진 등 기후변화에 매우 관심을 보였다. 총 4개 기관 760명에게 교육함으로써 작년보다 교육대상인원을 확대하였다.



기후변화, 그것이 알고 싶다!



섬마을에 찾아가는 날씨 선생님



해피 실버 교육

어린이, 청소년, 어르신 대상 교육에 이어 기후변화센터에서 대학생 및 기후강사, 지자체의 공무원, 지역민 등에게 교육을 하였으며, 특히 귀농귀촌 희망자를 대상으로 ‘아기농부 당신을 응원합니다’를 운영하여 한반도 기후변화 현황과 전망, 농업생산과 연계한 기상정보 활용법 등을 교육하였다.

작년에는 청소년 위주의 교육이 약 80%를 차지하였으나, 올해는 ‘유아에서 어르신까지’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기상 및 기후변화 교육을 하여 기상기후과학 저변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였다.



기후변화센터 커뮤니케이션 팀



양평군 녹색성장위원회



아기농부 당신을 응원합니다.

온 국민이 참여하는 기상기후이야기

기후변화 공감 토크쇼 '다큐멘터리로 배우는 기후변화 이야기'

인천광역시와 협업으로 인천의 랜드마크인 송도 트라이블에서 토크콘서트를 개최하였다. '북극곰의 눈물' 등 다수의 기후변화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유명토크쇼에도 출연하여 화제가 되었던 김진만 PD가 토크쇼에 참여하여 실제 촬영현장에서 경험한 기후변화에 대해 생생하게 전달하였고, 기후변화의 과학적 정보를 권원태 한국기후변화학회장이 설명하면서 토크쇼를 진행하였다. 또한 청소년, 중장년층 등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 320여명이 직접 SNS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질문이나 생각 등을 공유하면서 소통하고, 공감하여 더욱 흥미로운 시간이 되었다.

'기후변화 공감 애니메이션 공모전' 개최!

기후변화를 주제로 애니메이션 공모전을 추진하였다. 초등학생부터 일반인까지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여 내가 느낀 기후변화,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노력 등 다양한 시각으로 표현하였다. 우수작으로 선정된 작품은 한국환경교육전시관네트워크를 통하여 기후변화 교육에 활용되고 있으며, 수도권기상청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받아 볼 수 있다.

지역축전에도 참여하여 기상기후 홍보부스와 기상기후사진전을 운영하여 기상기후과학 이해확산을 위해 힘썼다.



다큐멘터리로 배우는 기후변화 이야기



다큐멘터리로 배우는 기후변화 이야기



기후변화 공감 애니메이션 공모전

소통으로 지역 맞춤형 서비스를 준비하다!

기후변화 공동대응을 위한 적극적 소통

기후변화 대응 협력을 위해 지자체와 유관기관 대상 기후변화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기후변화 대응 담당자들을 한자리에 모아 서로의 정책을 공유하고, 협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지자체의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기후변화 시나리오 활용 설명회도 개최하는 등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기후변화 공동대응을 위해 노력하였다.

'행복한 도시를 위한 건강자외선 정보' 서비스 개발

실내 생활 시간이 많아 햇볕에 노출되는 시간이 적은 도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비타민D 결핍 해소를 위한 맞춤형 건강자외선정보 생산연구를 통하여 자외선적정노출시간정보를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과 협업하여 개발하고 있다.

- ▶ 2015년 : 관측기반 대기특징(에어로졸)이 반영된 서울시 건강자외선정보 산출기술 개발
- ▶ 2016년 : 동네예보의 하늘상태가 반영된 행정구역별 건강자외선정보 산출기술 개발

수원시 바람과 열섬 상세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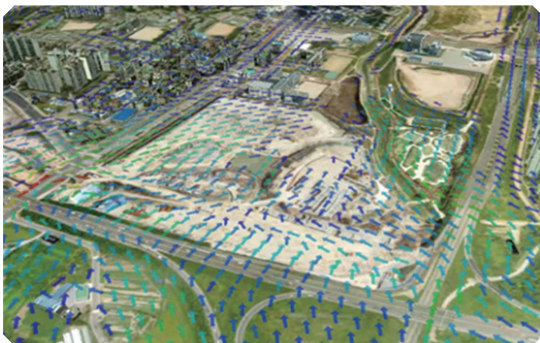
기상청 국지예보모델의 기상정보와 수원시 지리정보 데이터 기반의 자료 융합으로 바람 및 열섬 정보를 분석하여, 쾌적한 대기환경과 도시기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연구 중이다.



기후변화 시나리오 활용 설명회



수도권 기후변화 간담회



개발 전 바람 흐름



개발 후 바람 흐름

우리 온라인에서 만나요~

수도권 기후변화 홍보단 “산돌림”을 소개합니다.

수도권기상청 기후변화 홍보단 산돌림은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한 줄기씩 내리는 소나기’라는 뜻이다. 수도권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후변화 정보를 산돌림 단원들이 개인 블로그 및 카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온라인을 통해 홍보하는 활동을 하였다. 제공된 22건의 정보는 단원들에 의해 총 472건 확산되었다.

수도권 날씨 인포그래픽 “날씨를 그린다”

위험기상현상 및 주요 기상용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표나 이미지로 표현하여 홍보하고 있다. 홈페이지 전용 배너와 페이스북에 게시하여 많은 사람들이 기상기후정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산돌림 온라인 활동 예시



산돌림 오프라인 활동



날씨 인포그래픽 “날씨를 그린다”

힘든 일도 힘들게 느껴지지 않는 비밀

추수하는 농부는 힘든 일을 하면서도 얼굴에는 웃음으로 가득하다. 이유가 뭘까? 바로 수확의 기쁨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지역기상담당관 활동을 하면서도 힘든 날도 많았지만, 웃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 만큼 지자체 및 지역민의 행복한 반응이라는 수확이 있어서이다. 어느 날 우편으로 날아온 학생들의 감사엽서와 노인복지관에서 만난 어르신들의 멀리서 와줘서 고맙다는 따뜻한 말이 힘들지만 힘들게 느껴지지 않았던 비밀이었다.



Give and Take, 자르고 나누기

수도권기상청 지역기상담당관
예보과 기상서기 강혜미



“

나는 예보과 소속이다. 예보과에서는 매일이 이슈이다. 날씨가 좋은 날에도 왜 좋은지, 어제와는 어떻게 다른지, 누가 이 정보를 필요로 할지.. 항상 고민을 하게 된다. 인구도 많고 유관기관도 많은 수도권, 이 지역을 담당하며 많은 생각을 해본다. 지역기상담당관이 직접 찾아가서 정보를 주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느낀다. 그 많은 수요자에게 그들이 원하는 정보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 이제는 지역기상담당관의 패러다임도 바뀌어야하지 않을까. 365일 꺼지지 않는 예보과의 지역기상담당관으로서 우리의 활동을 소개해보고자 한다.

”



활동요약

다양한 다수의 수요자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한 한해이다. 2015년 개설된 SNS '수도권 방재지킴이'를 시작으로 올해엔 제공 분야와 네트워크를 확대하여 더욱 활발한 활동을 하였다. 온라인 활동으로 방재 유관기관, 방재 업무 부서장, 해양 유관기관, 라디오 리포터 등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였다. 오프라인으로는 종전 방식대로 위험기상 발생이 예상될 때 해당 기관에 찾아가 예보 브리핑을 실시하였으며, 예보 자문관을 활용하여 업무 공백을 해소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활동의 원동력은 무엇일까. 정보 이용자로부터 받은 감사의 인사가 아니었을까.

맞춤형 기상정보는 포장두부와 같다

그리 멀지 않은 시절, 두부는 모두 한판에 담겨 있었다. 가게 주인이 칼로 두부를 나눠 자르고 손님은 비닐봉지에 한모씩 담아가야했다. 그렇기에 두부 한모의 무게는 모두 똑같지 않을 수도 있고, 담다가 쪼개지는 경우도 허다했다. 그러다 시간이 흘러 1990년대부터 포장두부 판매가 급증한다. 유통기한 연장과 포장기술이 발달하면서부터이다. 2016년, 이제는 포장두부가 압도적이다. 두부 이야기는 왜 하는 것일까. 나는 포장두부가 맞춤형 기상정보라 생각한다. 판두부는 그냥 기상정보이다.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정보에는 강수현황, 강수전망, 해상현황 등 다양한 내용이 담겨있다. 통보된 정보로부터 수요자는 원하는 부분을 가져가야한다. 꼭 판두부에서 두부 한모를 담아가는 것처럼.

수도권은 우리나라 인구의 약 50%가 집중된 지역이다. 그만큼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수도 많다. 그렇기에 수요자 성격에 맞는 정보의 신속한 전파가 어렵다. 기상정보 통보를 넘어 포장두부처럼 필요한 부분을 나눠 포장하고 제공해야하지 않을까.



판두부



포장두부

방재유관기관 SNS '수도권 방재 지킴이'

유관기관 방재업무 담당자에게 '수도권 방재 지킴이' SNS(밴드)를 통해 정보를 전달한다. 현재 200명이 넘는 멤버가 가입되어 있으며 주로 위험기상 전망을 제공하고 현황을 전파한다.

해양유관기관 SNS ‘수도권 바다날씨 알리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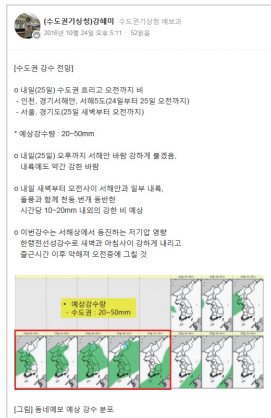
해양 유관기관 담당자에게 ‘수도권 바다날씨 알리미’ SNS(밴드)를 통해 정보를 전달한다. 현재 60여명의 멤버가 가입되어 있으며 해양 위험기상 발생 예상 시 정보를 전달한다.

방재업무 부서장에 ‘Safe Weekend Weather Servi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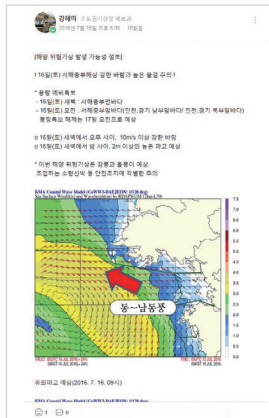
특보 발효 여부가 중요한 수도권 지자체 방재업무 부서장에게 주 1회 문자로 간략한 정보를 전달한다. 2016년 9월 시범서비스를 시작으로 환류과정을 거쳐 10월 본격적으로 시행되었고, 현재 16개 기관 부서장이 정보를 받고 있다. 주말 기상전망과 위험기상(특보) 가능성에 대해 언급한다.

라디오 리포터와 기상캐스터에게 실시간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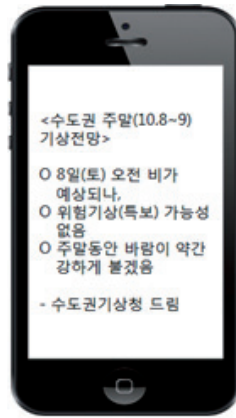
SNS를 이용하여 라디오 리포터들에게 기상정보를 이해가 쉽도록 풀어 전달한다. 위험기상 뿐 아니라 오늘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하며 실시간 질문에 대한 답변을 주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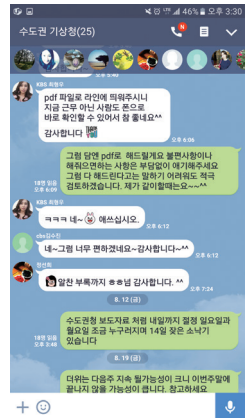
‘수도권 방재 지침이’



‘수도권 바다날씨 알리미’



방재업무 부서장 문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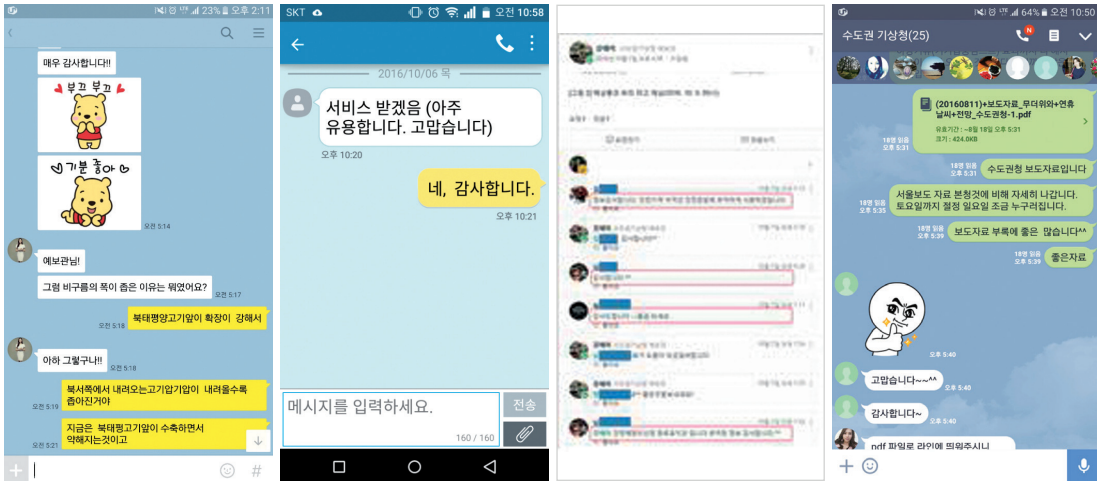


라디오리포터 SNS

수요자의 긍정적 반응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SNS를 이용하다보니 긍정적 반응을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다.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이모콘티는 물론, '감사합니다'라는 댓글도 남긴다.

다음은 긍정적 반응 내용이다.



1:1 라디오리포터

방재업무 부서장

'수도권 바다날씨 알리미'

라디오리포터 그룹

지역기상담당관 패러다임 변화

기존의 찾아가거나 하나의 기상정보문을 전파했던 것에서 이제는 기상정보를 수요자 맞춤형으로 나누어 포장하고 빠르게 전파하는 방식으로 변해야 한다. 지역기상담당관이 개별 기관마다 정보를 지원했던 것이 예전의 방식이라면, 이제는 다수 기관에 단번에 지원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해야 하지 않을까. 오늘도 지역기상담당관들은 기상정보를 열심히 자르고 나누어 포장한다. '감사합니다'라는 인사는 덤이다.



기후변화 교육 로드맵이 알려드립니다.

부산지방기상청 지역기상담당관
기후서비스과



“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민 100명 중 95명이 기후변화 문제가 심각하다고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시민 대부분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지하고는 있지만 실생활에서 참여할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하다고 말한다. 우리는 지역기상담당관으로서 지역민들이 지역기후변화 과학정보에 대해 이해하고 올바른 대응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책임감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



활동요약

‘앞으로 부산·울산·경남 지역은 태풍, 해일 등에 연안이 취약해지고 양식업에도 피해를 줄 것이며, 해파리 증가로 해수욕장 피해와 식중독 등의 위험이 증가 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유치원생에게 말한다면 기후변화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까? 아마도 이해하기에 어려울 것이다. 이에 착안하여 연령별 이해수준과 교육방법을 고려해 기적의 교실(유·초등학생) ⇒ 텐-톡 기후콘서트(중·고등학생) ⇒ 지역기후변화 아카데미(대학생) 기후변화 교육 로드맵을 구성하고 지역기후변화과학의 이해저변 확대를 위한 활동을 해나가고 있다.

소통의 시작, 우리 지역 알기

올해부터 자유학기제 도입으로 학생들의 진로탐색을 위한 교육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교육수요를 충족하고, 어릴 때부터 기상과 기후변화에 대한 교육을 통해 이를 인식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연령별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유·초등학생) 기적의 교실로 기적의 새싹 키우기

놀이·체험으로 기후변화 인식하기

유·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상시 진행하고 있는 기상홍보관 견학 프로그램을 새롭게 구성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적응 이해하기’라는 주제의 ‘기적의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쉽고 재미있게 기후변화를 인식할 수 있도록 기후변화 만화 시청, 기상교구 만들기, 기상캐스터 체험 등 다양한 놀이와 체험활동을 통해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여 기상과 기후변화에 대한 이해와 관심도를 증대시켰다.



태풍 위성영상 설명








기상교구 만들기



대학생 홍보단(그린나래 팀)

한편, ‘기적의 교실’ 프로그램에 참여한 BGV(Busan Global Village) 기자단 초등학생들이 직접 작성한 기사가 실린 영어 신문이 발간되기도 했다.

<p>History of Climate</p> <p>Weather observation and forecast started during the time of Queen Seondeok in Shilla. Cheomseongdae in Shilla and Koryo Dynasty and rain gauge in Chosun Dynasty played an important role in observing weather and the amount of rain. However, nowadays, a supercomputer is used for weather observation. It was a great chance to learn how important the weather is in our life and what Busan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does to provide the accurate regional weather observation and forecast for people's life. Last, I hope people would pay more attention to the Earth and take good care of it with continuous effort. How about visiting to Busan Regional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with family or friends?</p> <p> Myeongryun, Choi Eun Jin</p>	<p>The Ways to Predict the Weather</p> <p>On the rainy day, moms always watch the weather forecast and say, "get your umbrella." One day, I thought about how people can predict the weather. In 1904, the Busan Regional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was built in Daecheong-dong. We can easily know how to predict the weather. We can learn how to predict the weather. They say, "We can predict weather with the radar, super computer, satellite and antenna. We can predict weather many different ways." And a super computer can calculate weather faster than the human.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can also know the height of the wave with the pressure of the wave or know the change of wave's height according to the standard of sea level. We had a very good time learning about the weather.</p> <p> Myeongryun, Jeon So Yoon</p>	<p>Busan Regional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p> <p>Realize Advanced Meteorological Services to be on-time, accurate and valuable</p> <p> </p> <p></p>
---	--	--

부산지방기상청 교육활동 후 작성한 기사(BGV 기자단)

(중·고등학생) 텐-톡(teen-talk)으로 기후변화 토크(talk talk)

구체적인 기후변화 대응방안 배우고 실천하기

올해부터 자유학기제 시행으로 진로탐색의 교육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자유학기제와 기후변화를 연계한 프로그램으로 '텐-톡(teen-talk) 기후콘서트를 개최했다. 교육부(교육지원청), 국립부산과학관과 협력하여 국립부산과학관(부산), 통영 중앙중(통영), 거창여중(거창) 3곳에서 열렸으며 약 700여명의 학생들이 참여했다.

토크형식으로 진행된 콘서트는 KNN 다큐멘터리 '위대한 비행'을 연출한 PD의 강연과 기후변화 게임 등을 통해 기후변화 에피소드와 대응사례를 배우고, 또한 이와 관련된 진로 정보 제공으로 학생들의 보다 넓은 진로의 눈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북극곰 빙하 게임(4.29./거창)



KNN 진재운 PD 강연(8.7./부산)



내안의 기상씨앗 강연(9.26./통영)



북극곰 살리기 게임(9.26./통영)

(대학생) 지역기후변화 아카데미로 미래 직업 준비

기후변화 관련 미래 직업 체험하기

부산지역 기상관련 학과 대학생들에게 기상업무의 이해, 기상현장 체험교육, 실무자와의 소통할 수 있는 ‘지역기후변화 아카데미’를 운영했다. 올해는 국가기상슈퍼컴퓨터센터, 국가기상위성센터 견학을 통해 실질적인 업무 및 근무환경을 보고 잠재 기상인력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국가기상슈퍼컴퓨터센터(5.11.)



국가기상위성센터(5.11.)

“내년에도 다시 참가하고 싶어요~”

지역기후변화 아카데미활동 후 긍정적 반응들

‘지역기후변화 아카데미’에 참여한 한 학생이 작성한 설문조사 의견이다. 이 외에도 학생들이 체험을 하면서 느낀 점이나 ‘내년에는 이리이러한 내용이었으면 좋겠다’ 등 여러 의견을 작성해 주었다.



○○대학교 ○○○ 학생

일단 정말 유익했던 기회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 주최를 다시 하신다면 다시 참가하고 싶어요. 환경대기과학과의 여러 분야 중 일부분야 위성이나 슈퍼컴퓨터를 방문했지만 훗날 저런 일을 할 수 있는 분야였다는 것을 직접 보고 들으니깐 스스로 대기 과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고 미래의 목표를 위해 공부다짐도 되는 것 같습니다. 같이 간 친구 모두 유익했다고 말하는 걸 보면 정말 꼭 필요한 경험인 것 같아요!!



○○대학교 ○○○ 학생

기상청 업무의 근원(슈퍼컴 및 위성)에 대해 배우고 현장에서 직접 보아서 신기했습니다. 즉석에서 사진(기념촬영) 인화해 주셔서 좋은 추억도 담아가서 만족합니다. 담당 선생님들도 적극적으로 좋은 교육환경 제공을 위해 노력하셨습니다.



○○대학교 ○○○ 학생

기상청도 좋으나 태풍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국가태풍센터에 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작성된 설문조사와 의견을 반영하여 매년 아카데미 프로그램 내용의 구성을 새롭게 준비하는데, 다수의 학생들이 태풍에 대해서도 알고 싶다면 국가태풍센터에 가고 싶다는 의견을 적어 냈다. 과연 내년에 국가태풍센터에 갈 수 있을지 조심스레 생각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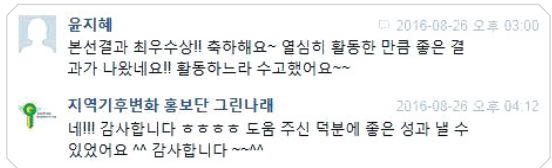
지역기후변화 아카데미로 시작 된 대학생 홍보단!

지역기후변화 아카데미 참여에서 대학생 홍보단 수상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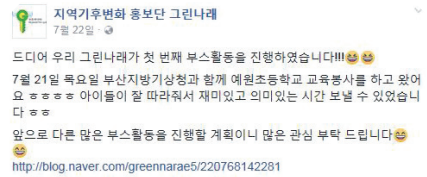
7월, 지역기후변화 대학생 홍보단 '그린나래'팀이 찾아와 지역기후변화에 대한 몇몇 질문과 함께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학생들 중 눈에 익은 한명이 있었는데, 바로 5월에 운영한 '지역기후변화 아카데미'에 참여했던 학생이었다. 본청에서 '지역기후변화 대학생 홍보단' 예선에서 합격해 '2016 지역기후변화 대학생 홍보단'으로 활동하게 된 것이다.

3개월 동안 각 지역에서 선발된 대학생 홍보단들이 활동한 성과를 공유·발표하는 자리에서 '그린나래'팀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기적의 교실 교육활동을 함께 하기도 했던 터라 기쁜 마음에 수상 소식을 듣자마자 SNS로 축하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했다.

학생들이 기상·기후에 관심을 가지고 더 나아가 기후변화 홍보단으로 활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후변화 교육에 참여한 학생 및 청소년들이 후에 우리지역의 지역기상담당관으로 활동할 날을 기대해본다.



인터뷰 후 청사 앞 단체사진(7.6.)



SNS '기적의 교실' 운영 계제 내용(7.22.)

P.S 부산지방기상청 '교육기부 대상' 수상!

부산지방기상청은 2016 「제5회 대한민국 교육기부대상」에서 공공부문 교육기부대상 기관으로 선정되었다. 교육기부대상(주관 : 한국과학창의재단)은 교육기부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 기관·단체 및 개인 등을 발굴·포상하는 것으로, 작년에는 '교육기부 우수기관'으로 선정된데 이어 올해 '교육기부 대상'까지 수상하는 영광을 가졌다. 이를 계기로 기상과학 교육기부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더욱더 노력할 것이다.



교육기부대상 상장



교육기부대상 상패



My Zone

해상사고 0 도전!!!

부산광역시 지역기상담당관
예보과 기상주사보 김태희



“

3월 17일 해양기상전문상담관 업무가 신설되었다.
갑작스럽게 새로 생긴 업무를 맡게 되면서 어떻게? 뭘 할까?
고민 중 부산 남항에서 선박이 좌초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상에 강한 바람과 높은 물결의 위험성을 모든 경로를 통해
정보를 제공했고, VTS나 해경에서도 대비를 하였으나, 사고가 발생했다.
왜 일까? 결론은 정보가 싱거웠다? 이후의 정보제공은 지역의 특성(양념)을
가미한 정보!! 오늘과 내일 부산 남항에서는 남-남동풍이 20m/s 내외,
물결이 4~6m로 매우 높게 일어 정박한 선박에 대한 위험성이 크다고
꼭 집어서 설명해주었다. 싱거운 해양기상정보에 양념같은 존재인
해상 지역기상담당관이 되겠다는 각오로 오늘도 열심히 ~~

”

★ 활동요약

부산은 해양과 내륙이 공존하는 해안도시이며, 육상과 해상의 위험기상이 상존하고 있다. 특히, 세계 5위의 물동량을 자랑하는 우리나라 제1의 항만인 부산항이 위치해 있고, 태풍 북상시 대형선박들의 안전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에 부산지방기상청은 태풍공개설명회와 선박대피협의회 기상브리핑을 통해 지역민의 안전을 위한 기상지원과 대형 선박들의 피항을 위한 기상정보를 지원하여 태풍으로 인한 지역 피해 최소화와 선박 피해 Zero에 기여하였다. 또한, 경남 남해안에는 작은 섬들이 많아 도서지역 주민에게 도서운항이 중요하며, 아름다운 자연경관 때문에 사랑받는 관광지로 유람선 운항이 활발하다. 또한 울산은 해양플랜트산업과 조선업이 활발하며, 창원은 해양자원을 기반으로 항만시설구축과 해양관광산업 육성에 힘쓰고 있다. 모든 지역에서 다른 목적으로 해양기상정보가 매우 중요하다. 나의 구역의 해상사고 0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지역에 맞는 맞춤형 설명으로 지역기상담당관 활동 중이다.

소통의 시작, 내 지역 알기~

부산·울산·경남 지역은 20개 시·군 중 10개의 시·군이 해안에 접해있으며, 해상에서 항만산업, 해양플랜트, 해양관광산업, 수산업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생활수준이 높아지면서 요트, 수상스포츠, 윈드서핑 등 해양스포츠를 여가로 즐기는 레저관광객들도 급증하였다. 때문에 해상의 위험기상정보에 대한 제공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부산의 남항은 남풍에 매우 취약하며 묘박지로 활용되고 있어 위험기상시 사고가 많이 발생하며, 북항은 우리나라 제1의 항만으로 많은 컨테이너 운반선들이 드나든다. 또한 통영, 거제, 남해 등은 수산업, 해양관광산업이 매우 활발하고, 비교적 작은 규모의 어선, 유람선들이 많아 더욱 정보제공에 주의를 기울여야한다. 울산은 해양플랜트 산업을 계발 중인 공업도시로 해상에 공사현장이 많아 사고의 위험성이 크다. 또한 대부분 선박사고가 해양오염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창원은 어패류, 해조류의 양식업이 활발하며, 작지만 3개의 항이 자리잡고 있다. 한 면만 트여있어 위험기상에 대한 해상의 피해가 적은 편이나, 과거 태풍이 상륙할 때 타 지역에 비해 많은 피해를 입은 기록이 있고, 해안가 저지대의 침수가 빈번하다. 이러한 많은 지역들 각각의 특성이 있어 항상 해양의 위험기상에 대한 정보 제공시 맞춤형 설명이 필요하다.

세계 제 1의 항만 부산 북항 지킴이 활동

최근 몇 년 사이 부산에 상륙한 태풍이 없었지만, 올해는 제 18호 태풍 차바가 부산에 상륙하여 지나갔다. 부산에는 세계 5위의 물동량을 자랑하는 우리나라 제1의 항만인 북항이 있다. 태풍의 북상시 대형선박들의 안전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만약 선박사고가 발생한다면 천문학적 수치의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부산지방기상청은 해양유관기관인 부산항만공사, 부산해양수산청, 부산해경, 부산 VTS 등을 대상으로 태풍 차바의 위험기상에 대한 정보를 미리 발빠르게 제공하고, 유선전화, 밴드 등을 통해 전망과 실황을 전달하였다. 또한 최근접 시점과 그 영향 범위와 강도 등을 과거사례와 비교하여 부산을 중심으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제공하였다. 부산항만공사 주최로 개최되는 선박대피협의회에 참석하여 태풍전망 및 부산 북항에 미칠 영향을 브리핑함으로써 부산 북항 주변 대형선박의 피항 유무와 시기를 결정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이로써 대형 컨테이너선과 정박 선박들이 안전하면서도 시기적절하게 피항함으로써 태풍이 부산을 상륙하여 직접 통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선박들에 큰 피해가 없었다.

BPA 부산항만공사

수신 수신자 협조
(중요)
제목 제18호 태풍저해방선 선박대피합의회 개최 알림

1. 항소 부산항 발전 및 항부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제18호 태풍 "차바"의 북상으로 부산항에 광범위영양되고 있는 선박의 대피 차기 결행 등 태풍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자 아래와 같이 부산항 선박대피합의회를 개최하고자 함에 따라 주사가 바랍니다.

가. 일 시 : 2016. 10. 4. (화) / 14:00
나. 장 소 : 부산항만공사 20층 세미나실(8층)
* 회의장 주소 : 부산항만공사 20층 세미나실(8층)
다. 참석대상 : 선박대피합의회 위원 전원

BPA 부산항만공사

수신 수신자 협조
(중요)
제목 제18호 태풍저해방선 선박대피합의회 결의 결과 알림

1. 항만운영실-4056(2016.3.3.)호 관련입니다.

2. 제18호 태풍 "차바" 북상에 따른 부산항 선박대피합의회 결의 결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각국 협조하여 주사가 바랍니다.

□ 선박 조치 사항
? 취약선박(강우포, 자력운행불가 및 노획한 선박 등) : 10.4 (화) 16:00까지 피항 완료
? 안전선-미만 선박 : 10.4 (화) 16:00까지 피항 완료
? 안전선-미만 선박 : 10.4 (화) 18:00까지 피항 완료
? 안전선-미만 선박 : 10.4 (화) 19:00까지 피항 완료
? 입항 통제 시간 : 안전선 미만 피항 완료 시간과 동일

□ 육상 조치 사항(운영실, 선주사)
? 취약시설 중기, 고기압, 강우, 조류, 조류인 고조 및 시설물 철고 등 (제1 안전조치) : 10.4 (화) 21:00까지

□ 부산항 입항허용 : 10.5.(수) 22:00 예상
* 홍보방법 : 문자메시지, 팩스, BPA 홈페이지 공지 등, 끝

선박대피합의회(10.04)

부산청해양기상전문상담관
2016년 10월 4일 오전 10:14 6일용

제 18호 태풍 차바의 직접 영향으로 해상에 위험기상이 예상됩니다. 강풍, 고파, 너울, 해안가 침수 등, 선박 중인 선박에 피해가 없도록 대비 바랍니다. 당초 발표되는 기상정보, 특히에 주의를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태풍의 직접 영향권인 만큼 피해가 없도록 대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기상청 해양 위험기상 발생 가능성 정보
(부산지방기상청 발표 : 2016. 10. 04. 10:00)

요약
오늘(4일)부터 6일(6일)까지 태풍 영향권 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산 동부산관광대선 강릉, 고령, 나원, 새만간, 천수 배수 주의

□ 해상 목표현황
- 풍랑주의보 : 남해동부만(1400)양 마산 해역(20)
- 풍랑주의보 : 남해동부만(1400)양 마산 해역(2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산 동부산관광대선 강릉 고령 나원 새만간 천수 배수 주의
□ 해상 전망
- 시정 : 오늘 약 00:00 부산 해안상 04:00 위쪽만 제 18호 태풍 직접 영향권으로 예상됨으로 강풍과 고파, 너울, 해안가 침수 등, 선박 중인 선박에 피해가 없도록 대비 바랍니다.
- 풍랑 : 오늘 해안상 04:00 부산 해안상 04:00 위쪽만 제 18호 태풍 직접 영향권으로 예상됨으로 강풍과 고파, 너울, 해안가 침수 등, 선박 중인 선박에 피해가 없도록 대비 바랍니다.
- 파고 : 오늘 해안상 04:00 부산 해안상 04:00 위쪽만 제 18호 태풍 직접 영향권으로 예상됨으로 강풍과 고파, 너울, 해안가 침수 등, 선박 중인 선박에 피해가 없도록 대비 바랍니다.
- 강풍 : 오늘 해안상 04:00 부산 해안상 04:00 위쪽만 제 18호 태풍 직접 영향권으로 예상됨으로 강풍과 고파, 너울, 해안가 침수 등, 선박 중인 선박에 피해가 없도록 대비 바랍니다.
□ 유관기관 주의 및 당부사항
- 소형선박들은 안전에 대해 관망하고, 대형선박들도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부울경 바다날씨 알리미 밴드 정보(10.04)

해양 유관기관과의 소통을 통한 효율적 정보 전달체계 마련

해양기상전문상담관 활동을 시작하면서 지역의 목소리를 듣고, 소통하면서 더 나은 해양예보로의 도약을 위해 여러 활동을 하였다. 부산의 해양 유관기관을 찾아가거나 통영, 창원, 울산 등에서 해양예보서비스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대면토의를 통한 소통을 시도하였다. 또한, 선박사고 대책회의, 봄철 농무기 대책회의, 동절기 대책회의 등 많은 회의에 참석하여 현장에서의 의견교류에 참여하면서 현장의 소리도 들을 수 있었다. 특히 유관기관에서 원하는 사항은 유연하고 정확한 특보운영, 해양기상자료의 공유 및 분석기술 교육, 기상정보의 접근성 개선이었다. 최근 이슈가 되었던 지진해일에 대한 정보 공유를 원하기도 하였다. 때문에 부산지방기상청에서는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여 정책적으로 반영할 부분은 본청에 건의하고 당장 해소할 수 있는 교육에 대한 수요는 적극 제공하였다.





해양기상정보 소개와 서비스 개선을 위한 간담회 및 강의

해양기상예보 분석 능력 향상을 위한 세미나 및 현장답사

해상의 지역기상담당관 활동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할 예보구역에 대한 분석능력 향상과 지역별 특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했고, 유관기관에 정확하고 효율적인 해양기상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여러 가지 활동을 하였다. 세미나를 통해 계절별 풍랑 특성, 풍랑사례에 대한 분석 등을 공유하였고, 지역의 지형에 대한 이해를 통한 분석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거제시 동부 해상과 부산 북항 등의 해상지형 현장답사를 하였다. 또한 해상에·특보에 대한 민원인, 여객선사 및 선박안전관리기술공단과의 소통을 통해 해양예보서비스 개선 및 이해도 증진을 도모하였다. 이와 같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지역의 해상예보능력을 향상시키고, 해상예보 수요자와의 다양한 소통을 통해 더 나은 해양위험기상정보 제공을 위해 노력하였다.



해양기상예보능력 향상을 위한 세미나 및 민원인과의 소통



해양기상예보능력 향상을 위한 현장답사 및 선장과의 소통

해양 유관기관으로부터의 반응

처음 해양기상전문상담관 활동을 시작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대외적으로 활발한 활동이 없는 예보현업 위주의 업무 경험만 있었던 나로서는 먼저 다가가기도 여간 힘들지 않았다. 하지만 1년 가까운 시간이 지난 현재는 스스로도 유관기관을 대할 때 자신감이 조금 생긴 듯하다.

올해 봄철 유별나게 강한 풍랑이 많이 발생하여 전국 곳곳에서 해상의 선박 사고가 많이 발생하였다. 5월 초 강한 저기압이 우리나라 북쪽으로 지나가면서 위험기상이 있었다. 이후 부산해경에서 남항 묘박지 선박사고에 대한 대책회의를 하면서 우리가 제공한 해양위험기상정보 덕분에 이번엔 완벽한 대처를 통해 아무런 사고없이 무사히 지나갔으며 앞으로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감사하다는 말을 들었다. 이후 몇 번의 대책회의 참석과 자료제공, 교육 정보 제공 등을 하면서 유관기관과 친근감이 느껴질 정도로 친분도 쌓였고, 서로의 공무상의 어려운 점도 공유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다.

요즘은 위험기상에 대한 정보를 전하기 위해 전화하면 “아이고 수고가 많으십니다”라고 나의 이름만 들어도 먼저 친숙하게 고마움을 담아서 내 말에 귀를 기울여준다. 또한 필요한 정보나 자료 등이 있으면 서로 부담없이 연락을 주고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유관기관과의 여러 가지 소통을 통해 업무가 공유되고, 여러 시너지 효과를 얻으면서, 업무협력과 이해도가 더 좋아졌다.

나의 다짐!

해상사고 “0”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양 유관기관에 교육이나 대책회의를 가보면 해상사고가 발생하면 여러 기관에서 협업하여 처리해야 하며, 처리에는 많은 어려움과 시간이 필요하다. 해상의 특성상 사고가 발생하면 인명사고, 재산사고, 환경오염 등 그 피해는 천문학적인 수치를 기록한다. 또한 그 후속조치나 선박의 인양, 오염물질의 제거 등에 짧게는 몇 달, 길게는 몇 년의 시간이 지나야 회복이 가능하며 회복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여러 회의에서 사고사례 등에 대한 내용을 들어보면 해양기상정보의 제공과 전파의 중요성을 계속 실감하고 있다. 적시에 정확한 정보를 필요한 내용으로 가공해서 여러 경로를 통해 전달하는 것, 해상의 위험기상이 발생하는 사례에 따른 피해 가능성 등을 많이 분석하여 알려주는 것 등 앞으로 할 일이 너무 많다. 대규모이면서 장시간이 소모되고, 여러 유관기관에서 협업이 꼭 필요한 해상사고의 특성을 알기에 앞으로 나의 구역 해상사고 0를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지역민의 안전과 지역발전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상생을 말하다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지역기상담당관
광주지방기상청 기후서비스과 송세정, 조용은

“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등 2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민의 안전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으며, 기상기후 빅데이터와 함께 타 분야를 연계한 융합서비스로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 역할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광주전남 기상기후서비스 발전을 위하여 ‘기상기후상생 협의회’를 구축·운영하여 분야별 관계기관과의 정책소통과 협업을 위한 지역기상담당관 활동에 노력하였다.

”



★ 활동요약

많은 활동 중에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작성하였다.

첫 번째는 광주·전남 등 29개 지자체와 다양한 분야의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협업·상생 방안을 모색하고자 구성된 기상기후상생 협의회를 올해 4월 처음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5개 분과(기상·농업, 해양·수산, 환경·보건, 에너지·교통, 산림·관광) 위원 40명, 50개 협력기관으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기상기후 서비스 개발과 업무공조, 분과별 위원회 협력활동 등 다양한 역할과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두 번째로는 지역 취약계층을 위한 생활기상정보 서비스 활동이다.

우리에게 일상적인 기상정보가 노약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들에게는 필수적인 생활기상정보이며, 이런 기상정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자체 복지담당공무원 및 민간 사회복지사들과 꾸준한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취약계층의 기상정보 서비스 접근성과 수혜자 확대를 위한 현장 교육과 리플릿 등을 통해 홍보한 결과 2015년 497명에서 2016년 2,450명으로 가입자가 늘어나면서 많은 분들이 생활기상정보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기상기후상생 협의회 구축 및 운영

지역 기상기후서비스 발전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네트워크 운영

작년 7월 조직개편으로 지방청 중심의 지역기상담당관 활동으로 운영됨에 따라 한정된 인력으로 지자체와 유관기관과의 소통활동에 따른 한계를 극복하고자, 지역별, 분야별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활동을 시작하였다.

기상기후상생 협의회는 위원장(광주지방기상청장), 5개 분과(농업·기상, 해양·수산, 환경·보건, 에너지·교통, 산림·관광) 위원 40명, 협력기관 50개로 구성하고, 광주·전남지역 기상기후변화에 대한 분야별 맞춤형 지역기후서비스 발굴과 협업, 빅데이터 기반의 다양한 기상기후정보 활용과 지원등 기관간 정책소통과 업무 공조를 위하여 소통활동을 추진하였다.



기상기후상생 협의회(6.28)



기상기후 상생 발전 포럼(11.18)

분야별 지역기상담당관 소통 활동

기상기후에 대한 분과별 현안과 협업과제 발굴 및 기상기후 정책소통을 위한 협력 세미나를 개최하여 지역기후 서비스, 방재기상, 기상관측 등 다양한 기상기후정보 활용과 분야별 현안 등에 관한 토론과 협업을 위한 소통을 추진 하였다.



에너지·교통 분과 협력 세미나(7.18)



환경·보건 분과 협력 세미나(8.31)

분과별 소통 활동에서는 한국전력거래소(에너지교통 분과),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환경보건 분과), 전라남도 농업기술원(농업기상 분과) 등 분야별 현장 중심의 협력 세미나를 개최하고 지자체, 공공기관, 학계 등과 한자리에 모여 토론하고 정책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해양·수산 분과 협력 세미나(10.6)



산림·관광 분과 협력 세미나(10.25)



농업·기상 분과 협력 세미나(11.9)

끝으로 기상과 기후변화에 대하여 분야별 지속가능한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지자체, 정부기관, 공공기관 등 다양한 기관과 칸막이를 제거하고 정보공유 및 협업을 강화하고자 오늘도 전략적 소통을 이어나가고 있다.

취약계층을 위한 생활기상정보 서비스 홍보·교육

취약계층의 기상정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소통

날씨변화에 민감한 지역민들의 생활안전과 취약계층의 건강보호를 위해 지자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및 민간 사회복지사 등을 대상으로 수혜자 확대 강화를 위한 교육과 홍보활동을 추진하였다.

지난 5월에는 전라남도청 등 22개 지자체 복지담당공무원 대상 연찬회(300명)를 통해 수혜자 확대 강화를 위한 생활기상정보 서비스 활용법에 대해 홍보하였으며, 민간에서 위탁받아 관리하는 취약계층과 관리자 및 개인 요양사 등도 휴대폰 본인인증을 통해 개인이 언제든지 직접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는 장점을 부각시켰고, 여름철과 겨울철 위험이 예상될 때 신속한 정보 제공을 통해 작은 도움이라도 되고 싶은 기상청의 활동도 홍보하였다.



전라남도 사회복지공무원 연찬회(5.13)



지자체 협력 세미나(3.24)

1시간가량 생활기상정보 서비스와 주요 업무를 소개할 때마다 박수와 함께 호기심 많은 질문을 하였고, 짧게나마 질문에 대해 이해시키는 답변으로 그 분들과 재미난 소통을 이어갔으며, 기상청에서는 기상예보만 하는 줄로 알았는데 사회복지와 연계된 맞춤형 기상정보 서비스에 대한 고마움과 함께 많은 관심을 가져주었다.

또한, 일일이 지자체를 방문해서 담당자들과 1:1 홍보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결할 수 있었던 아주 좋은 기회였으며, 이번 홍보·교육을 통해 많은 복지담당공무원들과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SNS를 통해 작은 소식들을 전하고 있다.

향후 계획

적절한 시기에 제공되는 기상정보로 대비하였던 지역민들의 선제적 행동과 더불어 시간과 장소 불문하지 않고 많은 분들과 소통한 것이 가장 큰 성과이다.

올해 활동이 부족했던 지자체와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2017년에는 더 많은 소통으로 지역민과 함께 동행하는 광주 지방기상청이 되도록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



Anyone, Anytime, Anywhere with 목포기상대

광주지방기상청 지역기상담당관
목포기상대 박경열, 김길한

“

목포는 2017년이면 개항 120년이 되는 해양도시이자, 근대기상관측의 역사를 고스란히 품고 있는 유서 깊은 도시다.

목포를 비롯한 무안, 신안 등은 해안과 인접해있고 어업과 양식업이 주요산업을 이루는 만큼 해양서비스를 발굴하고 제공하기 위해 지역기상담당관들은 오늘도 열심히 달린다.

”



활동요약

목포는 유서 깊은 해양 도시로 해양산업이 발달하였고, 한반도의 남서쪽에 자리 잡고 있어 위험기상 대응의 선봉장 역할을 하는 곳이다. 그렇기에 지자체 및 방재유관기관과의 소통을 통한 정보 제공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여름철과 겨울철 방재기간에 대비하여 관계기관 간 방재기상업무협의를 개최하고, 위험기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최근 5년간 특이기상을 간추려 ‘기상이슈달력’을 작성·배포하여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 냈다.

또한, 목포시는 해마다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침수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을 밀착 조사하고, 향후 영향예보의 초석 마련을 위하여 ‘해수면 상승 침수위험지구 재해지도’를 제작하고자 한다.

목포는 항구다?

목포는 전라남도 남서단에 위치하고 있는 인구 24만의 해양도시다. 지리적으로 여러 섬들이 외부 방파제 구실을 하는 천연의 양항으로, 19세기 말부터 열강제국의 주목을 받았던 항구도시다. 현재는 과거 항구도시로서의 영화와는 달리, 일정 규모의 수산업을 유지하고 있다. 봄·가을에 해무의 영향으로 안개가 잦으며, 해풍이 강하고 일교차와 연교차가 큰 기후특징을 가진다. 이러한 특징들을 고려하여 지역기상담당관 활동을 하고 있다.

[방재 활동] 지역 위험기상 대응, 선제적으로

목포기상대는 여름철과 겨울철 방재기간 대비 '방재기상업무협의회'를 개최하여 지자체 및 방재유관기관의 지역방재 업무 현장의 의견을 직접 듣고 소통하며, 적재적소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여름철 찾아가는 방재기상업무협의회



겨울철 방재기상업무협의회

목포시는 해마다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해수 침수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지난 11월 14일부터 17일까지 천문조 고조 시 해수면의 상승으로 목포 시내 일부 도로가 4일 연속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지역기상담당관으로서 고조 예상시각 전부터 최고조에 이르기까지 시내 곳곳을 밀착 조사하여 침수피해 상황을 가장 먼저 파악하고 지자체와 실시간 소통을 통해 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다.



해수 침수 현장



해수 침수 현장

올해는 태풍 ‘차바(CHABA)’와 기록적인 폭염 그리고 집중호우 등 국민들의 관심이 기상에 집중된 한 해였다. 위험 기상 예상 시 사전에 지역 언론 인터뷰 및 TV방송대담 등을 통하여 보다 많은 시민들의 재해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노력하였다.



TV 방송 대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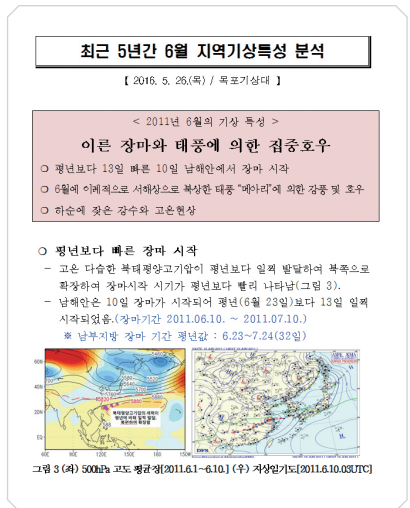
날씨 인터뷰

[서비스 활동] 선행학습 효과의 ‘기상이슈달력서비스’ 발굴

목포기상대는 호우·대설·태풍 등 지역 위험기상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민의 생활 편의 증진을 위해서 최근 5년간 나타난 특이기상을 간추려 매월 지자체 및 유관기관에 ‘기상이슈달력서비스(기상이슈달력, 지역기상특성분석, 월별 기상전망)’를 발굴하여 제공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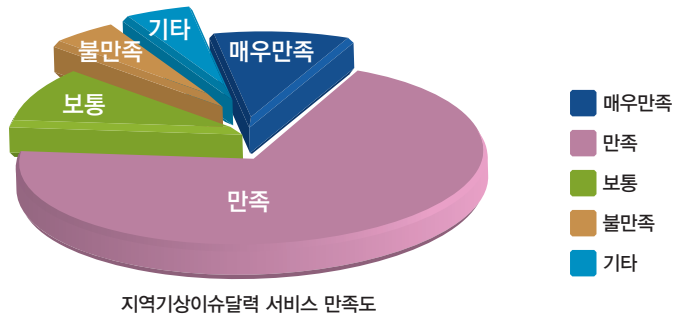
기상이슈달력



월별 지역기상특성 분석

이 서비스를 통하여 지역에 맞는 기상이슈(매월) 들을 지역민들로 하여금 사전에 학습하여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방재·농업·수산업·관광·레저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올해 4월부터 실시하여 8회에 걸쳐 지자체 및 유관기관에 제공하고 있으며, 활용도 및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해당부서 및 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서비스 될 수 있길 바란다는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소통 활동] 지역민 곁으로 좀 더 가까이

목포는 중소도시의 특성상 교육시설 및 콘텐츠가 부족하고 교육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곳이다. 이에 따라 목포기상대는 지역민 곁으로 한발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교육재능기부 수요자 중심으로 다채로운 교육을 병행하고 있다. 먼저,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위주의 어린이 기상교실과 중·고등학교 직업체험교실 그리고 해상안전을 위한 어업인 해양기상교육, 지역민의 지진 대처능력 향상 등 방재기상업무 강의 등을 실시하며 지역민과 함께 공감하고 호흡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어린이 기상교실



어업인 해양기상교육



중·고등학교 직업체험교실



기상인 직업체험 부스

[향후 계획] 해수면상승 침수위험지구 재해지도 작성

목포시는 해마다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해수 침수가 발생하고 있어, 2017년에는 영향예보 초석을 다지기 위하여 '해수면 상승 침수위험지구 재해지도'를 제작하고자 한다. 최근 5년간(2012~2016년) 지역별 침수 사례를 조사하고, 최근 5년간 천문조 현황과 침수사례를 비교분석 한 후, 최고조 시 침수지역 현장 조사를 통하여 재해 지도를 제작하여, 2018년에는 재해지도 침수예상지역을 중심으로 침수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선제적 대응을 하고자 한다.



칸막이를 없애고 함께하면, 효과는 UP! 부담은 DOWN!

강원도 지역기상담당관
기후서비스과 기상서기 김동현



“

‘동행’은 같이 길을 가는 것이나,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만 아니라, 같은 마음으로 가는 것이라 생각된다. 지역기후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여러 기관과 협업하여 18개 지자체의 특성을 살린 맞춤형 기상기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남한 면적의 16.8%를 차지하는 넓은 면적이지만, 강원도 18개 시군이 다 내 지역이라는 생각으로 오늘도 열심히 움직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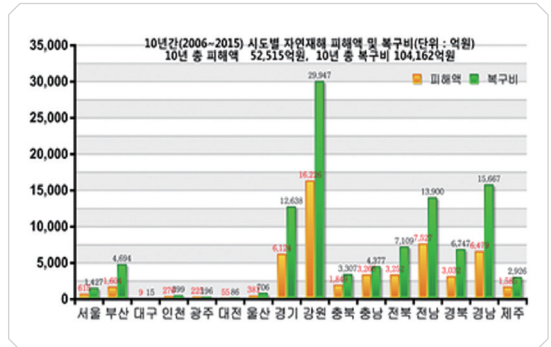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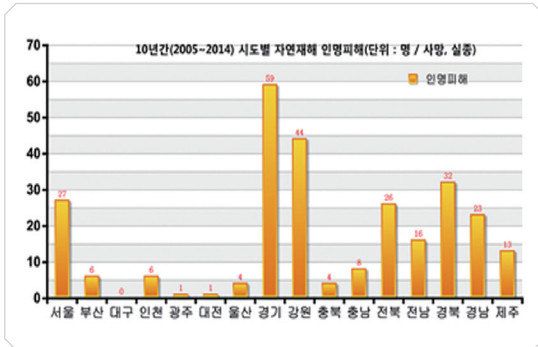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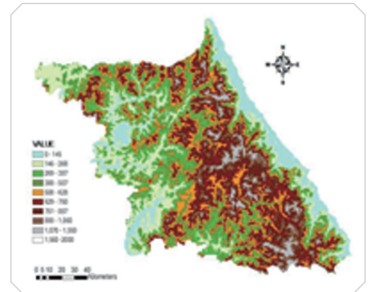
”

★ 활동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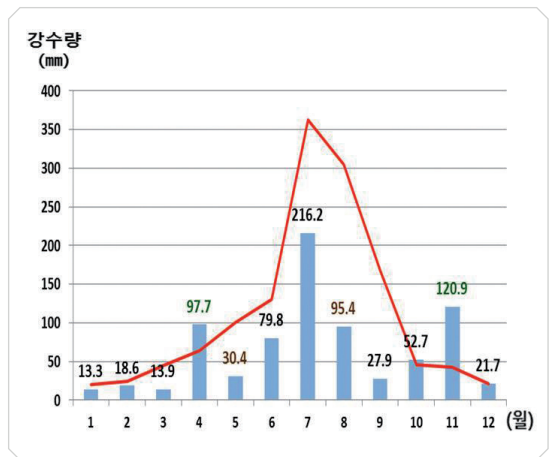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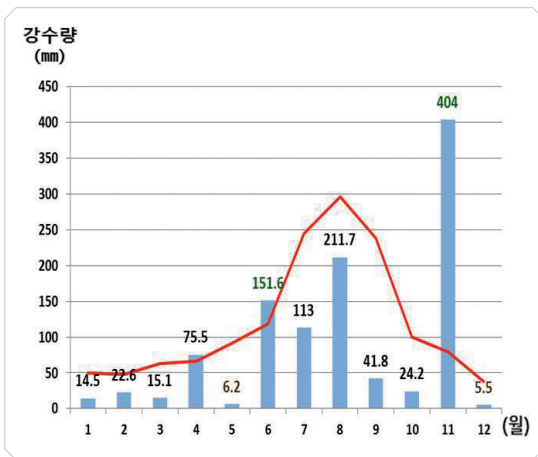
강원도의 특징을 반영한 맞춤형 기상기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16년 한 해 동안 유관기관을 방문하여 만난 담당자가 250명이 넘었다. 그만큼 다양한 분야의 담당자를 만나 지역 현안사항에 대한 많은 의견을 들었고, 기상청의 기상기후정보로 강원도민의 안전과 경제, 창업, 교육 등 지원을 위한 소통과 정보 교류의 장을 형성하였다. 혼자가 아닌 여러 기관과 협업으로 부담은 줄이고, 효과는 배가 되는 지역기상기후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소통의 시작, 강원도 바로 알기!

강원도는 18개 시군으로 남한면적의 16.8%를 차지하고 있으며, 면적의 대부분인 81.7%가 임야이며, 농경지는 9.7%를 차지하고 있다. 인구는 155만 명으로 전국의 약 3%를 차지한다. 영동지방은 산맥의 급한 경사면을 따라 내려와 바다로 연결되며 해양성기후에 가까운 기상 특성을 많이 보이는 반면, 영서지방은 한반도의 중앙내륙에 위치하여 대륙성기후에 가까운 특성을 보인다. 또한, 태백산맥이 남북으로 뻗어 있어 산맥이 위치한 지역은 산악기후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 강원도는 복잡한 기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최근 10년간 시도별 자연재해로 인한 인명피해 통계를 보면 경기도 다음으로 높은 16.3%를 차지하였으며, 자연재해 피해액 및 복구비 비중은 강원도가 30.9%, 28.8%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이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감소를 위해 기상기후 대응역량을 강화해야함을 나타낸다.



최근 10년간 시도별 자연재해 인명피해와 피해액 및 복구비



'15년 강원도 강수량 현황 및 특성(영동, 영서)

기상기후정보의 가치를 높여라!

기상기후정보는 일종의 빅데이터로 무한한 잠재가능성을 갖고 있다.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함께 출범한 「기상기후 빅데이터 강원 포럼」은 강원도 청년창업 활성화와 기상 신산업 육성을 위해 네이버와 강원지방중소기업청, 강원테크노파크가 후원하는 「날씨 데이터 스타트업 콘테스트」를 개최하였다. 온라인(네이버, 강원지방기상청, K-Crowd 등)과 오프라인(포스터) 홍보를 통해 총 29개 팀이 접수를 하여 최종 5개 팀이 선정되었고, 입상 팀은 창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받고 있는 중이다.



포럼 회의 및 콘테스트 시연회



날씨 데이터 스타트업 홍보 포스터



입상 팀

첫 시도였지만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콘테스트는 청와대까지 소문 나 미래전략수석은 이를 부처 간의 칸막이를 허물고 강원도 경제 활성화와 신산업 육성을 위한 융합행정을 잘 보여준 모범사례로 삼아 전 부처에 전파를 당부하였다. 또, 그동안 지역기상융합서비스 사업을 통해 발굴한 ‘한우사육지수’와 ‘씨감자 역병 발생가능 예측’사업은 기술이전을 완료하였고, 관련기관과의 협력으로 농가 소득증대 및 비용절감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민원행정 행정제도개선」, 행정자치부장관상(기관) 수상의 쾌거를 이루었다. 더불어, 창조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미래창조과학부의 「2016 대한민국 창조경제대상」 공헌분야 장관상까지 수상할 수 있었다.

「날씨데이터 스타트업」 콘테스트와 지역기상융합서비스사업의 기술이전을 통해 기존 1개에 불과했던 강원도 기상사업자는 현재 3개로 늘어나 강원도 청년 창업 활성화에 새바람이 불고 있다.



「민원행정 행정제도개선」 행정자치부장관상 수상



「2016 대한민국 창조경제대상」 공헌분야 장관상 수상



해양기상서비스 워크숍(10.26)



내손안의 동해해양기상정보

우리 함께 할까요?

[기후변화 이해확산] 함께하면 결과는 두 배!!



여름방학 어린이 날씨놀이터



에너지 골든 벨



대학생 대상 토크콘서트



기후변화 힐링 콘서트

강원도에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은 기상청 외에 기후변화대응교육연구센터,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한국에너지공단(강원)에서 운영하고 있었다. 우리는 협업을 통해 교육 자료를 공유하며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일깨우고 환경보존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했다. 4개의 기관과 「강원도 기후변화 교육·홍보 협의체」를 구성하여 정례회의(4.12)와 융합워크숍을 개최(7.21, 10.11)하며, 대상별로 맞춤형 이해확산 프로그램을 공동 운영하였다. 어린이, 청소년, 대학생, 가족과 성인 대상으로 ‘여름방학 어린이 날씨놀이터’, ‘도전! 에너지 골든 벨’, 토크콘서트, 라디오 퀴즈 이벤트 「기후변화 토크」(TBN) 등 연령별 눈높이에 맞춰 기후변화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여러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운영하여 국가 예산 1억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고, 지난해보다 더 높은 만족도를 얻을 수 있었다.('15년 84% → '16년 92%)

[단풍실황서비스] 강원도는 역시 단풍이 최고죠!

지난해부터 강원도 국립공원관리사무소와 협업으로 「국립공원 대표 탐방로 단풍실황정보」를 제공해왔다. 올해는 태백산이 국립공원으로 승격되어 강원도 4개 국립공원(설악산·오대산·치악산·태백산) 탐방로의 단풍실황정보를 제공했다. 2016년 서비스 개선을 위한 간담회(9.7)를 통해 태백산국립공원 탐방로(1소)를 추가하여 총 7개 탐방로의 단풍실황정보를 제공하고, 강원도청을 포함한 10개 지자체의 협조로 지자체 홈페이지에 배너를 등록하여 홍보효과를 톡톡히 보았다. 다 부처 간의 협업을 통해 홈페이지 이용자는 작년대비 170%가 증가하고, 만족도 조사 응답자의 93%가 서비스를 만족하며, 95%가 내년에도 계속 이용하겠다고 응답하였다. 서비스 사용자가 증가하면서 실제로 각종 블로그에 ‘꿀팁’으로 포스팅이 되어 긍정적 홍보 효과를 얻었으며, 강원도 산림관광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2016년 단풍실황 서비스 간담회(9.7)



국립공원 대표 탐방로 단풍실황정보



지자체 홈페이지 배너 표출 협력

에피소드

강원도 유관기관 98소와 오피니언 리더 250명을 만나면서 처음 보는 기상청 직원에 대한 궁금증과 ‘왜 왔을까?’라는 의문 가득한 눈빛은 1년이 다 되어가도 기억에 남는다. 하지만, 이제는 지나가다 우연히 들러도 반갑게 맞이해 주며, 그들에게 기상청이 좀 더 친근하게 느껴지는 것 같았다. 이 모든 것이 먼저 다가가고 꾸준히 소통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하며, 내년에도 더 나은 기상기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좋은 기반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희망이 강물처럼 흐르는 소통하는 춘천기상대 지역기상담당관

춘천시 지역기상담당관
춘천기상대 기상주사보 류시찬



“

우리 생활에는 날씨가 빠짐없이 함께합니다.
멋진 설경에 큰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호우로 야기된 산사태에
봉사왔던 청년들이 사망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일을 계기로 저는 앞으로 우리 지역에 기상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과 소통하는
지역기상담당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 활동요약

춘천기상대는 춘천시, 홍천군, 인제군, 양구군 등 4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역기상담당관을 운영하고 있다. SNS '날씨알림톡'을 이용해 급변하는 날씨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였으며, '찾아가는 관련기관 방재기상교육'과 방재기상업무협의회를 통해 유관기관 직원에게 클라우드 방재기상정보시스템 교육과 맞춤형 서비스 홍보를 하였다. 또한 춘천기상대만의 기상기후서비스 발굴을 위해 각 시·군에 위치한 ASOS와 AWS자료를 이용하여 계절별 기상특성을 분석하여 배포했다. 특히, 강원도 최고의 인공호수를 배경으로 한 자전거길인 유명한 춘천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위해 자전거길 기상정보서비스를 확대 제공했다.

내 지역 특성과 Needs 파악부터 시작하기!

춘천시는 강원도 도청소재지이며, 강원도 전체 인구의 12%가 살고 있는 중소도시다. 특히, 춘천은 분지로 되어있고 분지 안에 소양강과 의암호가 있으며 소양강댐, 춘천댐, 의암댐 등으로 인한 인공호수가 많아 수변이 잘 조성되고 경관이 수려하기로 유명하다.

한편, 서울~춘천 고속도로와 경춘선 전철이 개통되면서 각종 축제와 자전거길 등 관광 사업이 활발해졌다. 올해 관광객은 773만명(10.31. 기준)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4%증가하였고, 관광객이 늘어난 만큼 관광과 관련된 기상정보의 수요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활동 1. 춘천 자전거길 기상정보서비스 확대

춘천에는 북한강과 의암호를 둘러싼 자전거길이 잘 조성되어 있어 자전거 라이더들의 편의를 위해 2015년 6월부터 「춘천 자전거길 기상정보서비스」를 실시하였다. 특화된 기상정보가 좋으나, 작은 안내판이 알아보기 힘들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2016년에는 자전거길 안내판을 크고 눈에 잘 띄게 변경하고, 지점을 추가하여 총 8개소에 확대 설치하였다.

먼저 협업 지자체인 춘천시 도로과와 확대 방안에 대한 양기관 협의 하에 자전거 라이더와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을 선택 하였다(9.23, 1차 업무협의). 현장답사를 하며 안내판 시안을 작성했고 후보지와 시안 확정을 한 2차 업무협의(10.20)도 소조롭게 진행되어 11월 2일부터 정식 운영했다. 춘천기상대와 춘천시는 이번 사업이 설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홍보와 주기적인 업그레이드를 통해 춘천 자전거길이 전국에서 명품 자전거길이 되기를 바랐다. 이번 서비스에는 기상정보 외에도 날씨 제보앱 홍보문구가 들어가 자전거 라이더들의 날씨 제보로 위험기상에 대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제공자료



춘천 자전거길 안내지도



춘천 자전거길 기상정보 시안



자전거길 기상정보 QR코드 부착(좌 : (구)강춘역 / 우 : 삼악산쉼터 앞)

활동 2. 쉽고 친근하게 소통합니다. ‘날씨알림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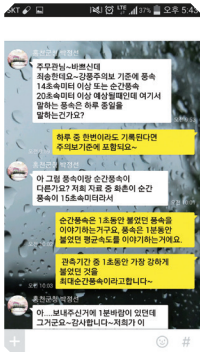
지자체 방재담당자들에게 찾아가서 기상재해 발생가능성에 대해 브리핑하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서로 긴 시간을 할애하지 않고, 빠르게 기상정보를 전달하고 편하게 대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스마트폰 SNS를 활용한 ‘날씨알림톡’을 개설했다. 각 지자체에서 재난을 담당하고 있는 실무 주무관 4인과 지역기상담당관 2인으로 구성된 날씨 알림톡은 기상재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때 알림 톡으로, 또는 궁금한 사항과 기상용어 문의까지 폭 넓게 운영했다.

한편, 위험기상 정보가 몇일 전부터 발표됐을 때는 나라e음이나 전화를 활용하여 효율적인 기상업무소통이 가능해졌고 담당자들의 호응도도 매우 높아졌다.

활동 3. 필요하세요? 찾아가서 알려드립니다.

우리 기상대의 방재기상업무협의회는 유관기관 관계자들을 모아서 진행하는 방식에서 직접 찾다니며 의견을 듣고, 대화하는 ‘찾아가는 방재기상업무협의회’로 진행했다. 관계자들이 함께 모인 곳에서 이야기 하면 각 기관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지 못하고 바쁜 업무로 참가하지 못한 기관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변경한 방식이다.

수요자에 맞춰 알려주고, 피드백하기 때문에 각 요구 사항에 명쾌하게 답변을 할 수 있었다. 또한 우리가 준비한 자료 외에도 방재기상정보시스템 이용 방법 등 교육을 원하는 기관에겐 차근히 설명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기상정보의 중요성을 더 많이 알릴 수 있었으며, 유관 기관들의 방재업무 준비 사항도 서로 파악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되었다.



날씨알림톡



찾아가는 방재기상업무 협의회



활동 4. 춘천에는 1개의 ASOS와 4개의 AWS가 있습니다.

춘천기상대에서는 우리 기상대만의 특화되고 세분화 된 기상정보 제공을 위해 관할지역의 ASOS와 AWS를 이용한 전 계절 특성분석을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이를 통해 앞으로 지역기상담당관 활동에서 하나의 틀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관할지역 4개 시·군 기상특성집을 작성하여 방재 담당자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다.

하나의 시·군에 하나의 장비가 있는 줄 알았던 방재담당자들은 각 장비의 위치와 관측요소에 대한 정보를 추가로 요청했고, 지역별 관측장비의 현황을 제공하였다.

기상특성집에는 기온, 강수량, 특이현상 등을 한 페이지에 수록하여 경험으로만 알고 있었던 지역의 특성을 공식적인 통계자료로 알 수 있어 호응도가 높았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소양강댐 수문 개방과 기상청의 역할, 그 노고에 감사합니다.

「찾아가는 방재기상업무협의회」로 소양강댐 관리단을 방문했을 때의 일이다. 여름철 기상전망과 기상청 정책 설명을 한 후에 여러 이야기를 나누던 도중 이번 여름비가 많이 오면 소양강댐의 수문을 열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가뭄을 대비하여 봄에 저수율을 높였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처럼 수많은 국민들의 생활용수 및 산업용수로 쓰이는 댐의 물자원에 대한 이용에 기상정보가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에 늘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지역기상담당관으로 자긍심을 느끼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인공 호수가 많은 춘천의 흐르는 강물처럼 늘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친근하게 다가가 기상재해에 대응하고 지역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지역기상담당관이 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전국~~체육대회(제97회)와 함께한 12일 간의 여정

제97회전국체전 지역기상담당관
배철호, 김연직, 홍성근, 이일용, 임장수, 안지현, 정지현

“



힘내라!! 충청남도~~응원하라!! 지역기상담당관~~
대전·세종·충남지역을 책임지는 지역기상담당관으로서
17개 지자체의 특성을 살린 맞춤형 기상기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수요자 모니터링, 지역특성 조사,
과제 발굴 수요조사, 찾아가는 유관기관 기상기후정보
검증 보완서비스 등을 추진하였다.
그중에서 활동 우수사례는 3개부서가 협업하여 실시한
제97회 전국 체육대회 지역기상담당 활동을 소개하고자 한다.

”

★ 활동요약

조직개편 이후로 지역기상담당관의 주무부서가 뒤바뀌면서 목적지 없이 표류하는 배처럼 힘든 시기였을 때 우리 대전지방기상청에서는 업무를 다른 과에 떠넘기지 않고 서로 자신의 일처럼 협업하여 지역기상담당관 활동을 실시하였다.

우리내부 3개부서(기후서비스과, 예보과, 관측과)의 긴밀한 협업과 외부로는 전국체전기획단, 충남 체육회와 상호지속적인 소통으로 안전 기상정보지원을 수행함으로 성공적인 대회를 운영하는데 이바지 하였다.

- ※ 제97회 전국체육대회: 2016.10.7.(금)~10.13.(목)
- ※ 제36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2016.10.21.(금)~10.25.(화)

소통의 시작, 내 지역 알기(지피지기)

‘지피지기면 百戰不殆(백전불태)’ 라는 말이 있다.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갖고 제97회 전국체전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벤치 마킹을 하러 전년도에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강원(청)을 방문하였다. [강원(청) 사전조사_1.27.]

아는 것이 힘이다. 다른(청) 활동업무 이해!!

Question **전국체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A 각 부서별 지원 방법 및 서비스 강화를 위한 협업노력

- 강원(청) 관측과(모바일차량 및 홈페이지운영 등)
- 강원(청) 기후서비스과(인력운영 및 서비스방법 등)
- 강원(청) 예보과(기상지원 및 예보서비스 등)



강원(청) 관측과



강원(청) 기후서비스과



함께하라~ 소통하라~ 발로 뛰어라~



충청남도의 CI상징은 아름드리나무다. 예로부터 화합과 공생, 풍요와 평안, 행복과 미래, 믿음과 소통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웃 간에 정과 예를 나누던 친숙한 장소를 의미하는 아름드리나무는 충청남의 정서와 매우 유사하다.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이 우리의 첫 할 일이라고 생각하여 화합과 공생하기 위하여 지자체 담당자들과의 소통을 시작했다.

우리를 먼저 찾기 전에 우리가 먼저 찾아 가서 그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듣고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이야기하는 시간을 통해 서로의 공통분모를 확인하고 서로가 win-win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외부기관과의 소통도 중요하지만 이 전국체전 안전지원 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도 칸막이를 제거하여 협업을 하였다.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Question **전국체전, 우리에게 먼저 해야 할 일은?**

A 지원 요청 전에 우리가 먼저 내부·외부와의 소통이 필수!!

- 충남도 체전준비기획단과의 안전 기상지원 업무협약(2.3.)
- 아산시 체전준비단과의 안전 기상지원 업무협약(5.24., 8.9.)
- 안전 기상지원을 위한 체전준비단 및 체육회 경기종목별 실무자 방문교육(8.9., 9.30.)
- 대전(청) 제97회 전국체전 기상지원TFT 구성(7.20.~10.25.) 총4차 회의 진행



전국체전준비단 교육



09.30.2016 12:13



09.30.2016 12:15

체육회 종목별 실무담당자 맞춤형 교육

안전 기상서비스 제공

남들과는 다르게 찾아가서 소통하고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했다면, 어떤 것을 어떻게 제공해야 할지 고민을 하였다. 먼저 가장 기본적인 업무인 구장별 및 계·폐막식 예보서비스를 정확하게 제공하는 것 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보다 안전한 정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를 생각했다. 그것은 바로바로~ 체육회 실무담당자 및 종목조정관에게 감동UP날씨정보 문자서비스와, 웹 정보 서비스 그리고 경기장 전광판 서비스였다. 또, 실시간 대응서비스 까지 안전을 최선으로 생각하는 우리들만의 서비스였다.

날씨 정보에 가치를 붙여 낫다!!

Question 전국체전, 우리가 제공해야 하는 정보는 단순 정보인가?

A 정확하고 신속한 기본정보에 가치를 더한 기상서비스 실시

- 안전 기상정보 Web 서비스 제공(전국체전 홈페이지, 대전(청) 홈페이지)
- 수요자 맞춤형 안전기상정보 통보문(단기예보, 중기예보)
- SMS 날씨정보(감동UP문자서비스), 모바일 웹 서비스 실시

감동UP날씨정보

16/10/16 오전 6:09

<대전지방기상청> 6시 현재 15.5도.
오늘 대체로 흐리고 낮부터 비가 온 후
늦은 밤에 그침. 최고 18도.
내일 대체로 흐리다가 낮부터 가끔
구름많겠음. 최저 14도/ 최고 23도.
*예상 강수량(16일 05시~ 24시):
5~20mm
*오늘과 내일 아침에 일부지역에 안개가
끼는곳이 있겠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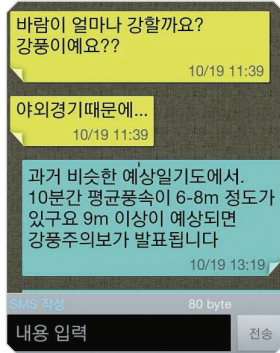
감동UP날씨정보 서비스

맞춤형 안전기상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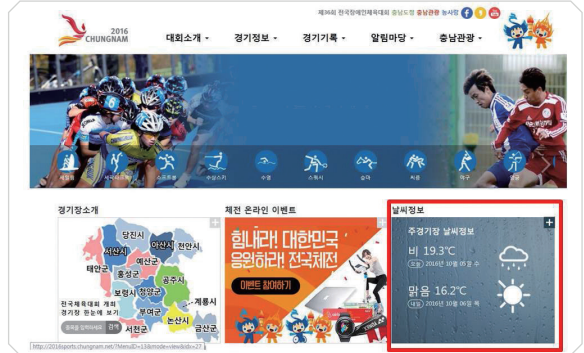
대전(청) 홈페이지 링크



모바일 웹 서비스



실시간 응대



체전 홈페이지 링크

지역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긍정적 반응

- (충남도청 전국체전기획단) 전국체전 홈페이지, 기상청 홈페이지를 통해 주경기장과 종목별 경기장에 대한 날씨 실황과 예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됨
- (충남체육회) 원활한 대회운영을 위해 종목별 담당자들에게 일기예보와 기상정보 활용방법을 교육해준 것에 대한 감사를 표함
- (아산시 전국체전준비단) 대회기간 뿐만 아니라 준비기간 중에도 기상지원을 받아서 많은 도움이 되었으며, 중기예보도 지역별 세분화된 정보를 제공해주면 좋겠음

에피소드

모든 행사의 시작인 개막식의 날씨가 그 행사의 열기를 좌지우지 한다고 한다. 그래서 이번 전국체전 역시 개막식 날씨에 대해 매우 깊은 관심을 보였는데, 하필 전국체전 개회식(10월7일) 당일 비예보가 나왔다. 체전준비단에서 며칠 동안 전화로 문의 하고 우리의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였다. 행사 전 사전 조치로 때 조금이나마 비를 피할 수 있었고, 다음날 일부 바람에 의해 홍보시설물이 넘어졌으나, 미리예측정보를 제공하여 대비책을 보완하면서 피해를 최소화 하였다.

이처럼 모든 준비를 완벽히 한다 하더라도 문제점이 발생하기 따름인데, 문제점을 최소화 하려는 노력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된 것 같다. 앞으로도 우리는 함께하는 마음으로 가치 있는 기상기후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 할 것이다.



배려가득, 기후변화 이해확산 교육의 첫걸음

-기후변화 이해확산 교육의 전문성 향상으로 고품질 수업에 도전하다-

대전지방기상청 기후서비스과 기상서기보 박보연



“

기상청에 입사하고 가장 많이 들었던 말 중 하나는

“어? 교육학과 출신이 여기 왜 들어왔지?” 이었다.

과연 나는 기상청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을까?

아니다. 전혀 아니었다. 기상청은 일기예보만 하는 곳이 아니라는

신문기사의 제목처럼 내가 가진 모든 지식과 경험들을 활용하여

‘대전(청)의 교장선생님’이라는 별명이 무색해지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다.

또한 우리 기관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 질 수 있다면

그것 역시 나의 기쁨이 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다.

”

★ 활동요약

대전·세종·충남지역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 교육을 진행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에, 가장 시급한 교육계의 화두인 ‘자유학기제’와 전 국민에게 관심을 받았던 일기예보와 기후변화 등 기상청의 전 분야를 효과적으로 다루면서도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추어 내용을 재구성하고 교수 방법을 수정하는 작업은 필수였다. 학습자가 누구이든 흥미와 관심을 기본으로 기후변화 이해확산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수요자에게 꼭 알맞은 프로그램들을 기획·운영하였다.

자유학기제 전면시행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

기후서비스과는 학생의 꿈과 끼를 키우는 자유학기제 취지를 살리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예보관 직업체험 「커리어멘토」를 필두로 다양한 체험과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많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우리 사회가 모두 나서서 도와야 할 필요성에 맞닥뜨리게 되면서 2016년! 교육청만큼 긴장되는 한 해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여름/겨울방학 기상기후 체험교실은 총 8회 181명의 초등학생이 참가해 주어 기상청에서 하는 일과 관측장비 팝업북 만들어보는 실습을 하였고, 대국민 기상교육으로 1,300여명의 학생들이 지역축전을 포함한 각종 여러 과정에서 기상기후 및 기후변화 이해확산에 혜택을 받았다. 현재 가장 인기프로그램인 「커리어멘토」는 7개 학교 200여명의 학생들이 기상예보관의 꿈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며 직업인 특강 역시 진로멘토단 활동과 덧붙여 3회 150여명이 참가하였다.

이외에도 육군 항공학교에서는 비정기적이지만 매년 4~5회 방문하고 있고 일반 견학을 포함하면 대전지방기상청과 함께하는 인원만 3,000명이 넘는데 소중한 분들 마음속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기억될까?

학교 단위 별, 지역 별, 학생 수준별 그리고 군인들 까지 모두 다 맞춤

다양한 학습 환경을 가진 수요자들을 모두 다 만족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다. 어떻게 보면 교육 전문기관이 아닌 이곳에서 초등/중등을 넘나들어 생각해야 하는 교육교재와 교구가 많았기에 혹시 단순하게 되진 않을까, 똑같은 말만 되풀이 하는 앵무새가 되진 않을까 걱정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다.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가장 대표적인 직업체험 프로그램인 「커리어멘토」의 시작을 앞두고 그 고민은 더욱 심해졌다. 왜냐하면 직업체험 문의와 수요가 급증하고 있었고 학교는 학교 나름대로 진로교사 1명이 모든 진로체험처에 전화를 걸어 섭외하고 있는 어려움이 많은 것을 알고 있었기에 과연 ‘모집방법과 수요조절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는 당연히 심사숙고해야 하는 것들이었다. 업무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조율을 해야 하므로 교육부 진로체험처 등록 사이트인 꿈길(www.ggoomgil.go.kr)의 요일/인원을 선택해서 저장한 후 떨리는 마음으로 대전·세종·충남지역 중·고등학교에 문서를 발송하였다. 역시……. ‘핫 하구만 핫! 공문을 발송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계속해서 울리는 전화벨 소리는 반가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거절해야만 하는 게 너무 죄송해서 “죄송합니다. 선생님. 저희가 다 바질 못해서…….” 라는 문장은 녹음이라도 해 두어 틀고 싶었다.



대전광역시라는 대도시 중심의 교육인프라 집중현상으로 관할지역 내 상대적 교육 소외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음을 알기에 도서·벽지에도 기상기후의 이해와 더불어 미래 기상인 육성을 위해 새로운 프로그램을 기획하였다. 이듬하여 「도서·벽지에도 불어라~ 꿈바람!」으로 풍랑특보 등 기상현상에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 섬지역 학생들에게는 기상예보관이 발표하는 예·특보 부분의 정교화 된 자료를 제공하고 직접 경험이 어려운 학생들에게는 직업인의 생생한 강연으로 관심도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특히 관할지역의 교육청(교육지원청)과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대상 학교를 선정하였으며 보령시 원산도 광명초/ 대전 유일의 벽지학교인 남선초/ 서천군 서도초 등을 찾아가 교직원들에게도 감사한 마음을 받기도 했다.



박주무관님 정말 감사해요
아이들이 주무관님
"짱"이시라네요

학교는 각각의 일정이 매 학년 초에 정해져있고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이동하기가 매우 어렵다. 견학을 오지 못하는 경우에 진로담당 선생님들의 부탁은 ‘혹시... 오실 수는 없죠?’ 이었다. 학교라는 공간에서 학생들 앞에 서보는 게 얼마나 오랜만인지, 저 학생들과 같이 교복을 입고 있을 때의 나는 무슨 생각을 했었는지 오히려 나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다.

이밖에도 매년 겨울/여름방학 기상기후 체험교실, 충남대 생활과학교실과 협업하여 진행하는 「찾아가는 기상기후 체험교실」 등 방학이면 방학이라 학기 중이면 학기 중이라 1년이 어찌 지나갔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지자체 역시 진로체험 지원센터와 연계하는 등 공주·계룡·논산의 진로 멘토단으로서의 인연도(지방소식에 전했던 권오웅 과장님과의 만남을 소중히 여기는 한연주학생) 소중히 간직할 것이다.

이제는 수신되는 번호까지 익숙하기만 한 특정번호와 목소리가 있다. 이때는 나를 굳이 다 밝히지 않아도 된다. “네~ 소령님!” 한마디면 끝! 대전(청)에는 학생들이만 온다고 생각했다면 그것은 큰 착각이다. 비정기적이지만 1년에 4~5번은 오는 육군항공학교의 ‘이종령 소령님’ 항공장교 양성반의 예비 장교들을 데리고 우리(청)에 오시는데 자주 뵈니까 익숙하게 안내하게 되고 또 다음번에는 어찌하면 더 나은 견학이 될 지를 함께 고민하게 된다. 올해는 유난히 군대에서 방문이 잦았다. 2850부대와 합동군사대학교까지. 특히 2850부대에서는 지난 여름, 너무나도 더운 날 부대에서는 음료수 3박스를 사들고 오셨는데 대대장님께서서는 저희 직원들을 부대로 초청해서 헬기를 타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노라고 약속도 하고 가셨다.

대전(청) 최고의 인기, 기상캐스터 체험 그 이유를 파헤치다.

각종 교육·홍보프로그램을 진행하다보면 설문조사에서도 확연히 나타나는 것이 하나 있다. 가장 좋았던 혹은 가장 재미있었던 코너는 무엇이었는데 대한 답이었는데, 답정너! 도 아님에도 남녀노소 누구나 기상캐스터 체험이 최고라고 답해주었다. 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 직접 체험 체험하는 것이라면 그 외에도 만들기 교구라든지, 토론 및 연극 활동도 있는데 말이다. 그러던 중 위에 썼던 일화에서 나는 그 답을 찾을 수 있었다. 바로~



초등학교 교과 중 즐거운 생활에 보면 ‘봄’, ‘여름’이라는 영역이 있다. 이때 핵심 개념과 일반화된 지식으로는 여름의 자연환경, 여름 날씨와 생활 등을 다루는데 이때에 보면 기상캐스터 체험이 교과서에 실려 있는 것이다. 교과서 혹은 TV에서만 보다가 실제로 크로마키 기법을 활용한 카메라에 비친 내 모습을 보노라면 신기하기도 할 거고 어쩌면 실물보다 별로(?)라고 생각하여 속상한 학생도 있었을 것이다.

새로운 꿈을 가지게 하는 사람, 행복을 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학교도 우리도 정신없는 한 해를 보냈다. 이때 큰 도움이 되었던 대전광역시 교육청의 ‘좋은 인재 기르기 협력단’과 연계한 진로담당자 워크숍에 참석하여 다른 유관기관 및 학교와의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갈 수 있었다.

학생들이 빛나는 눈빛으로 나에게 관심을 갖게 될 때면 자동으로 긴장이 된다. 기상캐스터가 되고 싶다는 학생부터~내가 기상예보관이 되어 날씨를 다 맞춰보고 싶다는 학생까지... 아무래도 이런 긍정적 피드백을 받다보면 개인적인 뿌듯함을 물론이고 현재 나의 표정, 나의 말투, 목소리 하나하나가 이 학생에게는 기억될 ‘기상청’ 전체의 이미지라고 생각하니 말 한마디가 조심스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그 한마디 “우와~ 나도 거기서 근무해보고 싶다.”라는 간절한 마음이나 “저도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들어가고 싶은데, 요새 공무원 공부하기 어렵잖아요.”라는 그것이 때로는 한숨이 섞인 작은 희망이라도 보게 되면 힘이 난다.

대전(청)은 학생 뿐만 아니라 군인, 학부모, 가족 등 다양한 특징을 갖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언제나 많이 오는 학생은 물론 유관기관과 협업하는(충남대학교 생활교실- 찾아가는 기상기후 체험교실, 기상이와 환경이가 함께 고민하는 기후변화, 힐링 콘서트)것이나 혹은 학부모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브런치 기후 카페, 우리 가족과 함께하는 기후변화 이야기)이 호응이 좋다. 특히 올해도 브런치 기후 카페 2기 어머니들은 마지막에 동영상 제작으로 감동을 주셨고, 힐링 콘서트에서는 시각장애인으로 구성된 관현맹인 전통예술단(조은음악나눔원)의 공연으로 진정한 감성소통의 기회가 되었다.

‘기상청’이라는 꿈을 가져다주는 사람, 그것은 내가 가진 모든 능력들을 총 동원하여 발휘해야만 함은 물론이고 우리 기관을 방문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 이것 역시 가장 중요한 역할이 아닐까?



공감·소통·협업 三多를 담다.

제주시 지역기상담당관
기후서비스과 기상서기보 김상현

“



작년 기상청 조직개편 이후 제주청 기후서비스과는 누구보다도 숨 가쁘게 달려왔다. 가장 먼저 기상대가 통합이 되어 지방청 차원에서 업무를 수행을 하게 되어 다양한 분야의 유관기관들과의 협업을 위해 발에 땀 나도록 뛰어다녔다. 올해는 그 노력이 결실을 맺는 해이다. 조직개편과 올해 인원 공백이라는 내부적인 어려움이 있었지만 오히려 우리 기후서비스과 직원들이 하나가 될 수 있었다.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기상담당관 역할을 묵묵히 수행해준 제주청 직원들을 대신하여 1년의 활동을 정리하는 이 글을 쓰게 되어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



활동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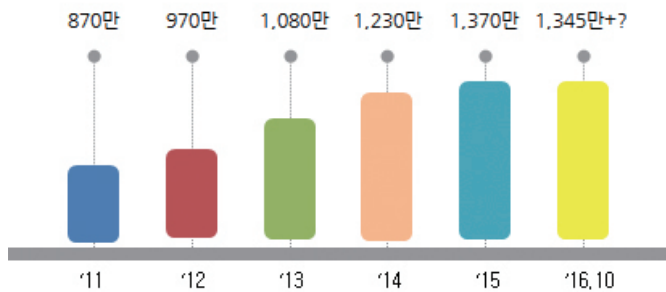
제주도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관광지임에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올해는 아마 작년의 관광객 1,370만 명을 충분히 넘어 설 것으로 보인다. 관광업에 기상정보는 필수적이다. 일반 국민 뿐 아니라 사업자에게도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아쉽게도 제주의 기상정보를 관광 사업에 활용한 사례는 거의 없다시피 하다. 그리하여, 제주청은 최근 제주도에 급증하고 있는 무동력 레저산업을 지원하고 지역 기상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관광코스별 기상정보 서비스와 제주도 상세바람장 표출 시스템을 개발했다. 또한 이 정보를 Open-API로 제공하여 사업자들이 정보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유난히 더웠던 올 해 여름처럼 점점 심해지고 있는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정보를 제공하고자 유관기관과 협력하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기후변화 체험 프로그램은 운영 하였다.

소통의 시작, 내 지역 알기~

제주도 관광객 수는 매년 역대 최다를 갱신하고 있다. 올해 역시 작년 기록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도는 말 그대로 인산인해(人山人海)이다.

관광은 날씨에 민감한 분야이고 관광객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 중 하나는 기상정보이다. 그럼에도 제주의 관광 관련 서비스에 기상정보가 제대로 활용된 경우가 많지 않다. 있더라도 단순히 날씨만을 표출해주는 정도가 고작이다. 만약 날씨정보와 동시에 날씨에 따라 관광 코스를 바로 짤 수 있다면 어떨까. 더불어 관광지에 대한 상세한 정보와 코스와 기간에 따라 날씨 정보를 알려준다면 여행 계획을 더욱 스마트하게 할 수 것이다. 그리고 제주도의 바람을 이용한 레저 스포츠(패러글라이딩, 윈드서핑, 열기구 등)인구가 늘어나고 있지만, 이들이 활용하는 정보는 대부분 외국의 정보를 이용하고 있다.

한편, 제주도는 관광업, 서비스업을 제외하고는 거의 그렇지만 산업기반이 빈약하다. 특히 기상산업은 두말할 것도 없다. 작년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의 자료를 보면 기상관련 콘텐츠로 창업을 한 곳은 없었다.



연도별 제주도 관광객 수 (출처: 제주관광협회 자료)

스마트한 제주관광

① 날씨로 인해 망친 여행 계획 πππ

기상이는 여자 친구와 제주도 3박4일 여행을 왔다. 여행코스도 완벽하게 짰고 여행 기간 동안 날씨도 좋을 것이라 했다. 오늘은 올레 1코스 트래킹을 하려고 했는데.. 헐..예보에 없는 비가 온다. 어쩌면 좋을까. 여자 친구를 실망시키지 않으려면 열린 다른 관광지를 알아봐야지! 열심히 블로그를 뒤져 관광정보를 찾고 홈페이지에서 입장료는 얼마고, 위치는 어디고...

제주도에 여행을 와본 사람 중에 이런 경우를 한번 정도는 겪어 보았을지도 모른다. 아니면 이런 상황을 우려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제주도는 섬지역이고 오름이 많아 지역적으로 날씨 예보가 쉽지 않고 판이하게 다른 경우가 많다. 예보가 틀릴 가능성은 어디에나 있다. 만약 이럴 경우 제주도 전체의 현재 날씨와 예보에 따라 관광지를 추천받고 관광정보도 한 번에 볼 수 있다면? 더 나아가 내 입맛에 맞춰 추천 관광지 코스를 바꿀 수 있다면? 그래서 제주청은 '제주도 관광코스별 기상기후 서비스'를 개발하게 되었다.

② 날씨에 따라, 입맛에 따라 간편하게 해결

[관광지 추천] 관광지 추천을 통해 미리 설정된 추천 관광 코스를 통해 힘들어서 찾을 필요도 없이 손쉽게 관광지 루트를 찾을 수 있다. 코스별 기상정보는 당연히 제공되는 필수요소이다. 여기에 관광지에 대한 설명과 입장료 등 기본 정보를 한눈에 알 수 있는 메뉴이다.

[나만의 관광 코스 설정] 추천 관광지 외에 내가 직접 관광지 루트를 설정할 수도 있다. 특히나 국지적으로 다른 날씨를 보이는 제주도의 특성에 따라 비가 오지 않은 지역을 확인하면서 루트를 설정할 수도 있고, 비의 영향이 받지 않는 실내 관광지 위주로 설정할 수 있다. 여기에 SNS에 공유도 가능하다.

③ 서비스를 만들기까지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가 무엇이며, 사용하기 편한 인터페이스를 적용하는가이다. 그렇기 때문에 민관협력 세미나와 2차례의 전문가 및 사용자 간담회를 통해 다각적으로 수렴한 의견을 반영을 하였다. 그리고 서비스 개발 단계부터 제주관광공사와 긴밀하게 협력관계를 가졌다. 관광지 정보 콘텐츠나 표출방법에 대한 자문을 구했고, 서비스 개발 완료 후 기술 이전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으며 다양한 방법으로 서비스를 활용하기로 하였다.



서비스화면



제주청 민관협력 세미나



전문가 간담회



제주관광공사와 업무협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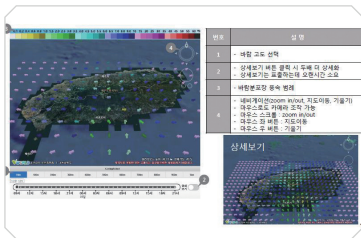
제주도에 바람(!) 쐬러 오시죠~

제주도 상세바람 표출 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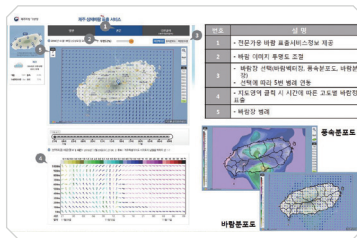
[바람에 대해 연구하다] 올해 10월까지 제주도에 레저스포츠를 위해 방문한 사람은 129만 명이며 그중 바람을 이용한 레저 스포츠를 즐기러 온 사람은 2/3정도로 추산 된다(제주관광협회 자료). 하지만 아쉽게도 우리나라 자료는 전무하고 외국(어플리케이션)의 자료를 대부분 활용하고 있었다. 제주청은 제주의 무동력 레저스포츠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상청의 1.5km 해상도의 LDAPS 자료를 활용하여 제주지역 특화된 바람 표출 시스템을 개발했다.

[사용자 중심의 표출 시스템] 상세바람표출 서비스는 크게 일반인용, 전문가용, 국민 참여 페이지로 구성했다. 일반인용은 사용하기 쉽게 심플한 표출 방법으로 설계 되었으며, 3D맵을 활용한 바람정보가 제공된다. 전문가용은 고도별 바람정보와 시계열 등 다소 전문가의 해석이 필요한 정보들이 제공된다. 마지막으로 국민 참여 페이지는 현재의 날씨를 사진으로 볼 수 있게 되고, 직접 기상사진을 업로드 할 수 있는 기능이 제공된다.

[정부3.0 가치실현] 제주청은 서비스 개발 과정에서 기상청의 정부3.0 국민디자인단 대표과제를 수행했다. 일반 시민 및 전문가로 구성된 국민디자인단 14인이 서비스 개발 단계에 참여하여 개발 방향 정립 및 자문의 역할을 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구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상세바람 3D 표출 화면



전문가용 페이지



국민디자인단 발대식 (4.8)

지역 기상산업육성 지원하기

① 기상산업 육성을 위한 초석 다지기

제주청은 2014년 제주도청과 상호증진을 위한 협약을 맺은 이후 2015년 8월 기상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조례가 지자체 최초로 제정이 되는 결과를 얻었다. 이를 바탕으로 작년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와 기상산업 육성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15.11)을 체결하였고, 올해 4월에 제주테크노파크와 업무협약협약을 체결 하는 등 본격적인 기상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에 나섰다.

② 기상산업 육성 지원을 위한 활동

앞서 제주지역 상세바람표출 시스템을 Open-API 서비스로 12월부터 정식제공하고 있다. 이는 제주도 관광 및 신재생 에너지 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올해 7월에는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기상기후정보 활용 설명회를 가졌다. 이 설명회에 47명의 예비 창업자가 참여하는 등 많은 관심을 받았다.

③ 기상산업 육성을 위한 협업

제주특별자치도청은 올해 제주지역 기상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 용역 사업을 수행했다. 이 과정에서 제주청은 사업 자문단으로서 역할을 수행했다. 그리고 지난 '2016년 제주지역 기상기후 융합워크숍'에서 '제주지역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상기후서비스의 역할'이란 주제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관광과 연계된 기상산업 육성 방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테크노파크와 업무협약(4.20)



테크노파크와 업무협약 보도자료



기상정보활용 설명회 홍보 포스터



기상정보활용 설명회



융합워크숍



융합워크숍 보도자료

기후변화의 최전방에서 기후변화 이해확산을 꽃피우다

① 지역민과 함께하는 체험 프로그램 운영

제주청이 2012년부터 운영해온 '땀다! 하늘사랑 어린이 홍보대사'의 제4기 멤버를 선발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다양한 체험과 홍보활동을 하였고, 작년에 이어 개최한 '제주 기상기후 스탬프 투어'를 통해 기상기후과학 확산을 위해 노력했다. 그리고 기후변화 공감 어울림 마당 '제주 기후사랑 훈디 모영 해보게 마сім'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이벤트와 기후변화 스토리를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뒤다! 하늘사랑 어린이 홍보대사 발대식



제주 기상기후 스탬프투어



제주 기후사랑 훈디모영
해보게 마심 어울림 마당

②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 기상기후 교육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한 ‘기상이와 함께하는 기후변화 교실’ 초등학생을 대상의 ‘문뜩 모다들영 기상기후 교실’ 그리고 청소년 진로탐색 교육 과정인 ‘꿈 그릴 락(樂) 진로체험 교실’을 운영했다. 또한 ‘도서지역 찾아가는 기상기후교실’과 ‘여름방학 교육기부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한편 자유학기제의 시행에 따라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의 진로체험처에 참여하여 다양한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기상청 진로체험교육을 실시하였다.



<그림17. 여름방학 교육기부>



<그림18. 꿈 그릴 락(樂) 진로체험>



<그림19. 도서지역 찾아가는 기상기후교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에 대한 답을 찾자

처음 지역기상담당관 업무를 하면 느끼는 감정이 있을 것이다. 바로 누군가를 만나러 갈 때의 긴장·어색함 같은 불편한 감정을 말이다. 하지만 이런 불편한 감정이 조금씩 설렘·기대감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직원들은 느끼고 있다. 결국 자주 만나고 가까이 다가가는 것만이 해결책일 것이다. 제주청 지역기상담당관들은 올 한해 열심히 사람을 만나고 목소리를 듣기 위해 노력했다. 이와 동시에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기 위해 노력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내년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서 시작했던 과거와는 달리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서부터 답을 찾으려고 노력할 것이다.



제18호 태풍 '차바'(CHABA)를 잡아라!

서귀포시 지역기상담당관
예보과 기상서기 신선옥



“

제주도는 예로부터 농·수산업 등 산업활동이 활발하고, 최근 관광객이 연간 1300만 명이 넘는 등 관광업이 급속히 발달하면서 태풍, 집중호우 등 다양한 위험기상에 대비할 수 있는 기상정보에 대한 지역민의 수요도 나날이 다양해지고 있다. 만족도 높은 기상서비스 제공을 위해 오늘도 지역기상담당관으로서 보람과 자부심을 느끼고 큰 역할을 다짐해본다.

”



활동요약

10월 우리나라에 직접영향을 준 태풍 중 가장 강력했던 제18호 태풍 차바(CHABA)! 제주도는 남쪽에서 북상하는 태풍을 가장 먼저 맞이하는 지리적 위치로 인해, 그리고 강한 강도로 유지하며 접근하는 '차바' 때문에 모든 대비태세를 갖추어야 했다.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정확한 기상분석부터 유관기관과의 협력대응, 그리고 언론을 통한 지역민과의 태풍정보에 대한 소통까지 국제안전도시 제주 정착을 위해 방재업무를 수행하였다.

제18호 태풍 ‘차바’의 기억

올해 10월 5일 제18호 태풍 ‘차바’가 휩쓸고 간 제주, 제주도 성산부근 해안에 상륙 당시 고산 최대순간풍속이 56.5m/s(5일)를 기록하고, 4~5일간 뒷세오름에 내린 강수량이 659.5mm에 달하였다.

깜깜한 새벽에 세차게 창문을 잡고 흔드는 듯한 강한 비바람 때문에 잠 못자던 경험은 실로 내가 겪은 태풍 중에 인생태풍이 될 것 같다. 이처럼 강력했던 제18호 태풍 ‘차바’를 잡기위한 제주지방기상청의 기록을 풀어 본다.

활동 1. 지역기상담당관의 첫 임무, 정확한 기상 분석부터

9월 29일 태풍 ‘차바’가 발생한지 1일째 되는 날, 태풍 ‘차바’는 일본 열도로 전향하여 이동할 것으로 분석이 되었다. 이는 태풍정보를 생산하는 국가태풍센터를 중심으로 기상청 전국의 예보관님들이 의견을 수렴한 분석이었다.

하지만 각 나라별 수치모델의 모의경향이 불안정하여 우리나라로 지나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 이에 태풍이 발생하여 제주도로 접근하는 일주일의 기간 동안 예보과 직원들은 기상 분석에 대한 열띤 토의를 하며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방재차원에서의 예보 분석에 노력을 기울였다.



태풍 분석 회의(10.2)



3차원 분석 툴을 활용한 태풍분석(1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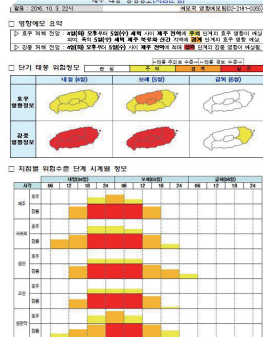
활동 2. 유관기관과 함께해요

광활한 고온의 해상을 지나면서 많은 양의 수증기를 머금고 성장해온 태풍 ‘차바’가 10월 5일 제주도 성산부근 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분석되기에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시작되었다.

태풍의 이동경로와 강도 분석에 대한 내용을 제주도청, 한라산국립공원 등 각 기관의 재난관련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설명하고, 제주도지사, 행정부지사가 주재한 태풍 상황판단회의에서 기상전망에 대한 브리핑, 예보국 영향예보TFT에서 생산한 제주특화 태풍영향예보(단기) 분석정보를 도내 유관기관에 공유함으로써 재난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 판단에 지원하였다.



태풍대비 긴급대책회의(도시사주재, 10.4)



제주 태풍 영향정보(시험운영)

제주시 영향정보

태풍 대비 비상 상황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하여 태풍의 위치, 강도, 진행 방향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태풍의 영향 범위를 나타내는 등압선(기압이 1000hPa 이하인 지역)을 확인하고, 태풍의 중심 위치와 강도를 분석하여 제주시 및 남제주군에 대한 영향 정도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태풍의 중심 위치와 강도에 따라 제주시 및 남제주군에 대한 영향 정도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태풍의 중심 위치와 강도에 따라 제주시 및 남제주군에 대한 영향 정도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태풍의 중심 위치와 강도에 따라 제주시 및 남제주군에 대한 영향 정도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태풍의 중심 위치와 강도에 따라 제주시 및 남제주군에 대한 영향 정도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태풍의 중심 위치와 강도에 따라 제주시 및 남제주군에 대한 영향 정도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활동 3. 지역민의 궁금 Zero

태풍 '차바'가 어떤 경로로 이동해 오는지, 얼마나 많은 비와 바람이 불 것인지.. 온 국민이 뉴스를 보며 관심을 갖고 있었지만, 그래도 태풍의 길목에서 제일 먼저 태풍을 맞이하는 제주도민들의 걱정이 가장 클 것이었다. 그렇기에 제주도민과 태풍정보를 소통하고자 도내 언론사를 통해 수시로 태풍의 위치와 강도, 전망에 대해 전파하였다.

10월 4일 부터 태풍에 의한 많은 비와 강한 바람 및 하천 범람 등 기상재해에 대비를 당부하고자 긴급방송을 요청하였고, 제주MBC 8시 뉴스데스크에서 태풍현황과 전망에 관한 인터뷰를 하였다. 또한, TBN 교통방송국의 요청으로 수시로 태풍 현황과 전망에 대해 라디오에도 목소리를 실어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였다.



제주MBC 방송 인터뷰(10.3)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감사의 마음 받아 ♥

제 18호 태풍 ‘차바’의 영향권에서 벗어난 10월 6일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실장이 주재한 자리에서 10월 우리나라에 직접영향을 준 태풍 중 가장 강력했던 태풍 ‘차바’의 특성에 대해 설명하였다. 원희룡 도지사는 ‘이번 태풍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지방기상청 간 적극적인 소통으로 선방하여, 기상청에 깊이 감사한다’ 하였고, 지나간 태풍에 대한 분석내용을 공유함으로써 자연재난 사후대응 협력에도 고마움을 표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면담(10.6)

태풍이 지나간 자리, 우리가 깨끗이!

태풍 ‘차바’가 몰고 온 비바람으로 제주도내 곳곳에는 가로등이 쓰러지고 5만여 가구가 정전 되었으며, 한라산의 물폭탄으로 인해 일부 하천이 범람하여 토사가 도로에 넘쳐 있었다.

태풍에 의해 피해를 입든, 입지 않았던 간에 지역민들이 모두 하나가 되어 두 손을 걷어 태풍이 휩쓸고 간 흔적을 지우기에 나섰다. 제주지방기상청에서도 외도 월대천 및 인근 해안으로 지역사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한 환경 정화 활동을 하였다.



태풍 ‘차바’ 피해에 따른 봉사활동(10.14)

제주지방기상청의 모든 직원이 지역기상담당관의 역할을 수행하여 제18호 태풍 ‘차바’에 대한 소통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주셨기에 그 기록들을 모아 본 사례를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올 한해 「국제안전도시 제주」 정착을 위한 제주지방기상청 직원분들, 지역방재업무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6 대구기상지청 '기후변화를 품다'

대구기상지청 지역기상담당관
기후서비스과



“

둘리의 고향 빙하가 녹고 있다.
우리가 어린 시절 좋아하던 만화 주인공 ‘둘리’
우리 마음속에서도 잊혀지고 있는 만큼 기후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도 잊고 있는 것은 아닐까?
대구기상지청은 기후변화 대응에 함께 힘써줄
미래의 후원자들을 찾아 나섰다.
그리고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2016년 기후변화 공감의
가장 큰 동력은 관심과 사랑이 아니었을까 싶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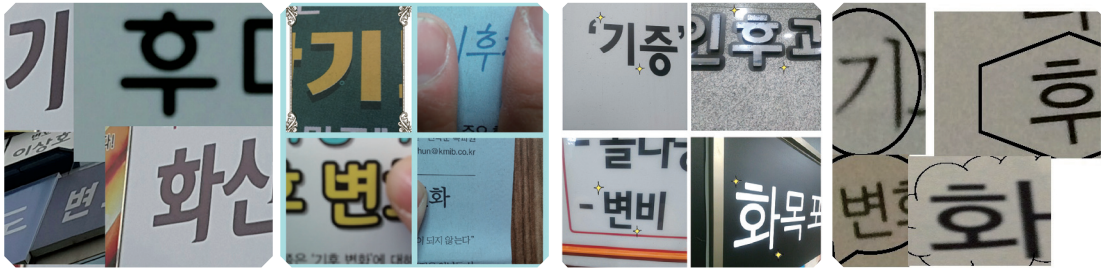
활동요약

대구기상지청은 기후변화 소통을 위해서 오늘도 고민한다.
2015년 그 초심을 잊지 않으려고 계층별 다양한 현장맞춤형 이해확산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지역
봉사단체·교육기관과 연계한 지역별, 대상별 차별 없는 교육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이 소홀한 것은 무척 안타까운 현실이다. 2016년 유·아동부터
청소년, 대학생, 교사까지 그 대상을 넓혔다. 지역아동센터에서 장애인까지 취약계층도 놓칠 수 없었다.
대구에서 그치지 않고 경북까지 대구기상지청 기후서비스과는 대상에서 장소까지 그 영역을 넓혔다. 그
어느 때 보다 많은 애착을 가지고 기후변화 중요성을 알리는 일에 노력을 기울였다.
기후변화 그 든든한 울타리는 바로 우리 모두의 관심이 아닐까 싶다.

“기후변화”를 찾아라

최선의 대응은 최선의 예방이라고 했다.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대구기상지청은 생활 속에서 기후변화 찾기 미션을 던졌다. 형식도 장소도 제약이 없다. 누구나 ‘기후변화’글자만 완성하면 된다. 10일 동안 진행된 이벤트에 161건의 작품이 응모되었다. 거리의 간판, 잡지의 글자, 현수막, 상품이름 등 우리가 생활하는 주변 곳곳에 기후변화가 있었다.

이제 161명은 ‘기후변화’라는 단어를 만나면 반가움이 샘솟을 것이다. 이게 바로 기후변화를 함께 하고 있다는 소속감 같은 것이 아닐까?



「생활 속 기·후·변·화 글자 찾기」 이벤트

특별한 내일을 향해 Dream을 찾아라

학업·입시로 정신없이 바쁜 청소년들이 지구를 이대로 둘 수 없다며 나섰다. “날씨친구 동아리”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20명의 주인공들과 함께 장장 5개월 동안 참여형 기상·기후 이해확산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발대식에서 수줍어하던 모습은 열정으로 바뀌었고 방학 및 주말 시간을 내어 친구들과 미션활동을 함께 하면서 기후변화 실천 활동에 앞장서고 알리는 역할을 하였다. 또한 국가기상위성센터, 국가기상슈퍼컴퓨터센터 등 정책현장 탐방 및 시설 견학 중에는 날씨친구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앞으로 활발한 활동을 다짐하였다.

수료식 날 ‘날씨친구 동아리를 하면서 친구들에게 기후변화에 대하여 알려주고 스스로 실천하면서 제가 더 성장하고 있다는 걸 느껴서 좋아요! 라고 하는 친구들 모습에 내일은 조금 더 특별한 꿈을 꾸다.



발대식



오리엔테이션



체험교육



과학관 견학



홍보판넬 제작



국가기상슈퍼컴퓨터센터 견학



국가기상위성센터 견학



수료식

기후변화 영상콘텐츠 ‘금손’의 주인공을 찾아라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중요성을 글로 표현하는 것보다 영상으로 본다면? 표현의 또 다른 표현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2016 기후변화 영상콘텐츠 공모전을 시행했다. 주제는 ‘생활 속 기후변화 작은 실천! 우리들의 할 일을 찾고 있다 전해라~’이다.

67개의 예비심사를 거쳐 32개의 작품 중에서 12개의 작품이 선정되었다. 기후변화, 지구온난화, 친환경 실천 방법 등 재미있고 독특한 작품들이 출품되었다.

특히 초등학생들이 흥미를 오려 만든 환경뉴스 작품이 기억에 남는다. 아이들의 입장에서 고심해 만든 기후변화 의미를 보면서 더욱 울림이 컸고 아이들의 꿈을 지지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

기후변화 영상콘텐츠 ‘금손’의 주인공은 대학생 작품으로 “Stop Global Warming” 기후변화로 북극곰의 눈물로 시작되어 지구가 눈물을 흘리다 없어진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제 우리는 지구의 신호에 응답할 차례이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화이팅!



최종심사



시상식 1



시상식 2

구분	이름	직업명	비고
최우수상	오정우 외 1명	Stop Global Warming	경기/대학
우수상	장기원 외 1명	지구 단애개발	경기/일반
우수상	서재원 외 1명	이벤트마케팅	경기/일반
우수상	권민우	생활 속 온실가스를 줄여줘	경기/중등
장려상	조은진 외 1명	이웃사랑	경기/대학
장려상	김규리	기후변화 해결하기	경기/고졸
장려상	최민진	순지복 보는 기후변화	경기/고졸
장려상	최준호	북극곰을 지켜줘	서울/대학
합	이상희 외 5명	환경 뉴스	대구/중등
합	박지서 외 2명	지구에 대한 사랑	대구/대학
합	홍수현	생활 속 환경보호 실천방법	경기/대학
합	최재현	환경 그 소중함 이야기	경기/대학

심사결과 발표

홍보 포스터

온라인 홍보

사회 대구기상지청 기후변화 영상콘텐츠 공모

기사전송 2016-03-09, 21:34:58

대구기상지청은 다음달 1일부터 24일까지 ‘기후변화 영상콘텐츠 공모전’을 연다. 공모전에는 개인 또는 팀(6인 이하)을 구성해 참여할 수 있다.

‘생활 속 기후변화 작은 실천! 우리들의 할 일을 찾고 있다 전해라’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공모전에는 쉽고 재미있게 기후변화의 중요성을 알릴 수 있는 동영상으로 만들어 내면 된다. 분량은 2분 이내다.

응모작은 예비심사와 최종심사를 거쳐 5월 2일 발표되며 총 12팀(최우수상 100만원, 우수상 50만원 등 총 상금 320만원)에게 상장과 부상이 주어진다. 김정석기자 ks@daegu.co.kr

대구신문(3.9.)

기후변화 영상콘텐츠 공모 대구기상지청

내달 1~24일

2016.03.11

대구기상지청(청장 이종희)이 주관 하는 공모전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영상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을 통해 환경보호 우수 콘텐츠는 기후변화 홍보와 교육에 활용될 기후변화의 중요성을 알리고 공감대를 제고할 것으로 보인다.

신청기간은 내달 1일부터 24일 오후 6시까지이며, 개인 또는 팀(6인 이하)으로 대항하여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 주제는 ‘생활 속 기후변화 작은 실천! 우리들의 할 일을 찾고 있다 전해라’이며, 2분 이내로 쉽고 재미있게 기후변화의 중요성을 알릴 수 있는 동영상으로 공모(UGC) 형식이 권장된다.

재출품 동영상은 예비심사와 최종심사 거쳐 5월 2일 오전 10시에 수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총 12팀(최우수상 100만원, 우수상 50만원 등 총 320만원)에게 상장과 부상이 주어질 예정이다. 문의: 053-939-3841, 053-939-3842

대구일보(3.11.)

기후변화 활동영역을 넓혀라

기상기후 교육의 기회가 적은 벽·오지를 포함한 경상북도 지역의 청소년들을 위해 대구기상지청이 나섰다.

왜? 우리는 기상기후분야의 전문기관이니까!!

그 첫 번째 2016년 「기후변화 소리로 통하는 릴레이 콘서트」 문경 문창고등학교를 시작으로 총 6회의 릴레이 콘서트를 진행했다. 기후변화 강연, 영상콘텐츠 작품 감상, 기후변화 겨루기, 소망 나눔으로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아이들을 위해 꾸준히 교육을 진행했었지만 이번처럼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없었던 것 같다. 콘서트는 기후 이야기에 푹 빠진 학생들의 열기로 가득했다. 소통 릴레이를 진행하며 가장 많이 들었던 반응은 ‘누군가는 해야 할, 꼭 필요한 일을 학생 입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 보겠다’라는 말이었다.



기후변화 이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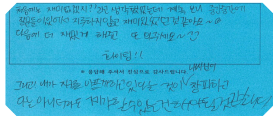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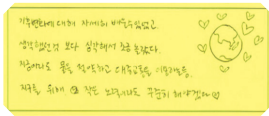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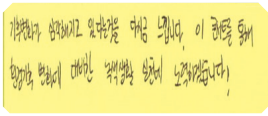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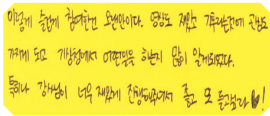
기후변화 영상콘텐츠
공모전 우수작품 공개



기후변화 겨루기(퀴즈이벤트)



기후변화 실천소망
종이비행기 이벤트



수료소감 및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실천 · 다짐



대구신문(10.26)



일요신문(10.26)

두 번째 청소년 진로탐색과정을 4~10월까지 7개월 동안 대구·경북 13개교 397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Dream 기상교실 등 진로체험 교육을 실시하였다. 기상관련 다양한 직업소개와 교육프로그램 등 체험교육을 통해 청소년의 적성과 미래에 대해 탐색하고 설계하도록 하는 역할이다.

기회가 부족한 아이들은 ‘내가 정말 좋은 기회를 갖게 되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기후변화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싶다는 약속을 잊지 않았다. 기후변화 홍보의 숨은 주역들 때문에 이제 대구·경북에서 우리들의 활동 영역은 전국구가 되지 않을까 한다.



청소년 직업체험과정 공개설명회(4.7)



진로체험 교육

대구기상지청 직업체험과정 10명 중 9명 "재미있었다"

2016.06.15

대구기상지청의 직업체험과정에 대해 10명 중 9명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대구기상지청에 따르면 최근 대구·경북지역 청소년 500명을 대상으로 '기상청 직업체험과정'을 운영한 결과 450명이 만족한다고 답했다.

참가자들은 "여태까지 체험했던 기관 중에서 제일 재미있었다", "두 번째 참여지만 지루하지 않다" 등의 수포소감을 적어냈다.

이아람 기자 aram@idaegu.com

<저작권자© 대구·경북 대표지역언론 대구일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대구일보(6.15)

대구기상지청 '기상청 직업체험과정' 만족도

온라인 기사 2016년06월13일 14시54분

[대구=일요신문] 남경원 기자= 대구기상지청은 대구·경북 청소년을 대상으로 '기상청 직업체험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13일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4월부터 현재까지 지역 내 청소년 약 500명이 참여했으며 오는 10월 까지 추가로 500여명이 기상청 체험과정에 참여할 예정이다.

기상청 직업체험과정은 올해 상반기에 50곳의 학교가 신청, 시·군·구별 지역분배를 통해 선착순 30개교를 선정했다.

프로그램은 기상청 업무소개, 채용방법과 진로상담, 기상기후체험, 관측장소 및 국립대구기상과학관 견학으로 운영된다.

대구기상지청 관계자는 "이번 과정의 만족도는 90%를 웃돌았다. 앞으로 청소년의 적성과 미래에 대해 탐색·설계할 수 있는 다양한 맞춤형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skaruds@ilyodg.co.kr

일요신문(6.13)



백엽상 년 누구?

아이들을 위해 영화를 보여주며 기후변화에 대해 알려주고자 시작한 영화상영이벤트!! 그리고 산타클로스 마음처럼 마음껏 선물을 나눠주고 싶어 준비한 기상기후 퀴즈시간~

정답은 백엽상이다. 마지막 힌트로 사진까지 보여줬다. 부모님도 서로를 쳐다보며 고개를 가웃?

3회 연속 백엽상 문제를 퀴즈로 냈지만 계속 물음표만 돌아왔다.

백엽상 년 누구이니?



영화상영 이벤트 단체사진



기상기후 퀴즈



영화상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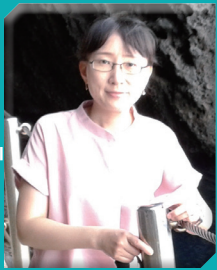
재해 동영상 시청

올해를 돌아보면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과 사람들을 만나고, 기후변화와 기후업무를 공유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런데도 아직도 더 많이 교류하고 만나고 피드백이 적은 것이 아쉬웠다. 기후서비스과 전 직원들이 너무 강한 애착을 가져서일까?

지금의 애착과 아쉬움을 보완하여 내년에는 더 가치 있는 성과와 피드백을 줄 수 있도록 고민하고, 또 노력해야겠다. 우리 미래의 주역인 아이들, 청소년에서부터 어른, 유관기관까지 다양한 계층과 함께 기후변화의 이야기를 더 많이 공감하고 싶다. 우리들의 노력이 더 확산될 수 있도록 튼튼한 뿌리를 내리는 아름드리 나무와 같은 기상청이 되고 싶다.

위험기상 대비뿐만 아니라 불안감에 지친 마음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경주시 지역기상담당관
관측예보과 기상주사보 최윤정



“

경주지역의 경우 동쪽으로는 해안이 위치하고, 시내 쪽에는 내륙 특성을 보이므로, 해양과 기상의 복합적 이해가 필요하여 해양기상 전문상담관으로서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한 기상지원의 필요성을 느꼈다. 해양과 기상의 복합적 전문지식의 효율적인 전파로 경주시의 자연재난 피해감소는 분명히 가능하다는 확신과 함께, 9.12지진, 이례적 폭염, 두 차례의 태풍으로 신음을 보였던 경주지역을 대상으로 수행한 지역기상 담당관 활동 이야기를 해보고자 한다.

”



활동요약

경주는 역사 문화 유적지 외에도 오류·전촌·나정·봉길·관성 등의 해수욕장에도 많은 사람들이 피서를 즐기러 오는데, 특히 동해안 해수욕장은 물이 깨끗하고 주변 경관이 뛰어나 문화유적관광지뿐만 아니라 해양관광지로서도 유명한 곳이다. 이에 내륙과 해양을 아우르는 다양한 분야의 기상지원과 서비스를 발굴하고 소통을 강화하고자 노력하였다. 특히 경주지역에서 발생한 9.12지진 피해에 대한 복구를 위한 기상지원과 소통에 주력했고, 뒤이어 발생한 태풍의 접근에 따른 기상지원도 더욱 강화했다. 올해 유난히 자연재해로 신음이 많았던 2016년 경주시민의 마음을 더욱더 보듬는 자세를 가지고 앞으로도 지금과 같은 노력을 이어갈 것이다.

2016년 경주, 자연재해로 얼룩지다.

올 한해를 돌이켜 보았을 때, 자연재해에 국한하지 않더라도 이슈사항 중 하나를 꼽으라 한다면 9.12지진을 빠트릴 수 없을 것이다. 역대 가장 강력한 한반도 지진이라는 기록과 함께 더 이상 한반도가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이 아니라는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다양한 지진피담이 떠돌기도 했다. 이에, 물적 피해뿐만 아니라 장기간 지속되는 여진에 따른 불안한 마음으로 인해 마음고생 많았을 경주시민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소개하고자 한다.

위험기상이 예상될 때, 직접 달려갑니다.

매체의 발달로 전화, FAX, 홈페이지, SNS 등 기상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경주시민들의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위험기상 선제지원은 현장방문 브리핑 위주로 운영하였다. 제18호 태풍 차바 북상 및 10.7~8 호우 예상 시 경주시청 안전재난과를 방문하여 해상과 육상을 융합한 기상브리핑을 제공하는 한편, 사전 대응을 위한 조치사항을 당부하였다. 또한 해수욕장 개장시기에는 해수욕장 협의회에 참석하여, 기상청에서 운영 중인 전국 해수욕장 일기예보 서비스에 대해 안내하고, 홍보를 극대화 하였다.

특히 9월 12일, 규모 5.8의 역대 가장 강한 지진이 경주시에 발생하였을 때에는 현장조사와 후속조치를 위한 현장 대응팀에 대구기상지청에서 지역기상담당관 2명이 참여하였다. 포항관측소에 현장사무실을 만들고 9월 20일부터 본격적으로 경주시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지역지자체와의 협조체계 구축에 관한 협의를 하였다. 또한 피해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애로사항과 불안감 해소를 위한 대책마련 의견을 청취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대구기상지청의 지진에 대한 대응 방향에 대한 의견도 수렴 하였다.



9.12지진 피해지역 현장점검

경주시 맞춤형 상세기상정보 활용해보세요~

유난히 뜨거웠던 2016년 여름, 대구기상지청에서는 경주시를 대상으로 폭염 영향예보 시범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최고기온 예보에 따른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 축사관리정보, 야외활동 유의사항 정보 등을 포함한 폭염 영향정보를 경주시청을 대상으로 7~9월동안 매일 제공하여 폭염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에 기여하고자 한 결과, 수요기관으로부터 예상했던 것 이상의 호응을 받은 바 있다.

9.12지진 관련으로는 북구현장(경주시 황남동, 월성동, 내남면) 대상으로 기상실황자료와 예·특보 정보를 9월 27일부터 일 2회씩 제공함으로써 복구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맞춤형 상세기상정보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제공 중에 있다.

해안지역 주민과 관광객을 위해 해수욕장 맞춤형 정보와 해양위험기상정보를 제공하여 기상청의 해양기상서비스 활용을 확대하고자 노력하는 한편, 방재담당자와의 소통매체(SNS 밴드) 마련으로 1:1 기상 상담을 수시로 지원하는 등 해안지역에서도 기상서비스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서비스 중이다.

대구·경북 폭염영향예보(시범서비스)

2016. 8. 21 (수) 12:00 발표

관측지역: 경상북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관측지역
1. 관측지역: 경상북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관측방법
1. 관측방법: 관측지역에 위치한 관측소 146개 지점의 관측 자료를 활용하여 관측 지점의 기상정보를 분석하고, 관측소 주변 지역의 기상정보를 예측하여 관측 지점의 기상정보를 예측한다.

관측기간
1. 관측기간: 관측지역에 위치한 관측소 146개 지점의 관측 자료를 활용하여 관측 지점의 기상정보를 분석하고, 관측소 주변 지역의 기상정보를 예측하여 관측 지점의 기상정보를 예측한다.

관측목적
1. 관측목적: 관측지역에 위치한 관측소 146개 지점의 관측 자료를 활용하여 관측 지점의 기상정보를 분석하고, 관측소 주변 지역의 기상정보를 예측하여 관측 지점의 기상정보를 예측한다.

폭염영향예보 시범서비스(*16.7~9)

9.12경주지진 북구지역 특별기상지원

경주, 북구, 남구, 서구, 동구, 남포동, 북포동, 서포동, 동포동

9월 27일(수) 9월 28일(목) 9월 29일(금) 9월 30일(토) 10월 1일(일)

기온: 낮 최고기온(도) 낮 최저기온(도) 낮 최고기온(도) 낮 최저기온(도) 낮 최고기온(도) 낮 최저기온(도)

강수량: 관측지점 강수량(㎜) 관측지점 강수량(㎜) 관측지점 강수량(㎜) 관측지점 강수량(㎜) 관측지점 강수량(㎜)

습도: 습도(%) 습도(%) 습도(%) 습도(%) 습도(%) 습도(%) 습도(%) 습도(%) 습도(%) 습도(%) 습도(%) 습도(%) 습도(%) 습도(%) 습도(%)

일사량: 일사량(kWh/m²) 일사량(kWh/m²) 일사량(kWh/m²) 일사량(kWh/m²) 일사량(kWh/m²)

일조시간: 일조시간(시간) 일조시간(시간) 일조시간(시간) 일조시간(시간) 일조시간(시간)

구름: 구름(%) 구름(%) 구름(%) 구름(%) 구름(%) 구름(%) 구름(%) 구름(%) 구름(%) 구름(%) 구름(%) 구름(%) 구름(%) 구름(%) 구름(%)

바람: 풍속(m/s) 풍속(m/s) 풍속(m/s) 풍속(m/s) 풍속(m/s) 풍속(m/s) 풍속(m/s) 풍속(m/s) 풍속(m/s) 풍속(m/s) 풍속(m/s) 풍속(m/s) 풍속(m/s) 풍속(m/s) 풍속(m/s)

파고: 파고(m) 파고(m) 파고(m) 파고(m) 파고(m) 파고(m) 파고(m) 파고(m) 파고(m) 파고(m) 파고(m) 파고(m) 파고(m) 파고(m) 파고(m)

해면온도: 해면온도(도) 해면온도(도) 해면온도(도) 해면온도(도) 해면온도(도) 해면온도(도) 해면온도(도) 해면온도(도) 해면온도(도) 해면온도(도) 해면온도(도) 해면온도(도) 해면온도(도) 해면온도(도) 해면온도(도)

9.12지진 북구지역 특별기상지원(*16.9.27~)

해수욕장 맞춤형 정보

관측지역: 경상북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관측방법: 관측지역에 위치한 관측소 146개 지점의 관측 자료를 활용하여 관측 지점의 기상정보를 분석하고, 관측소 주변 지역의 기상정보를 예측하여 관측 지점의 기상정보를 예측한다.

관측기간: 관측지역에 위치한 관측소 146개 지점의 관측 자료를 활용하여 관측 지점의 기상정보를 분석하고, 관측소 주변 지역의 기상정보를 예측하여 관측 지점의 기상정보를 예측한다.

관측목적: 관측지역에 위치한 관측소 146개 지점의 관측 자료를 활용하여 관측 지점의 기상정보를 분석하고, 관측소 주변 지역의 기상정보를 예측하여 관측 지점의 기상정보를 예측한다.

해수욕장 맞춤형 통보문 제공(*16.6~8)

수요자의 입장에 늘 귀 기울이겠습니다.

다양한 기상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에 그치지 않고, 고객의 입장에서 유용하고 실효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소통에도 힘썼다. 폭염 영향예보 시범서비스 제공 기간 중 폭염담당 공무원과의 간담회를 통해 영향예보 활용도를 점검하고 개선의견을 수렴하였다. 또한 해안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 간담회를 개최하여 해양기상서비스 활용법에 대해 소개하고 애로사항에 대해 청취하였다.



폭염담당 공무원과의 간담회



경북 남부 해안지역 주민 해양기상간담회

통계로 본 경주시 폭염피해 저감

폭염 영향예보를 통해 폭염재해 최소화에 기여하고자 노력한 결과, 폭염으로 인한 가축폐사 분야에 있어서 영향예보가 제공되었던 경주시의 경우가 경북 전체 감소율보다 더 높은 79.5%의 폐사두수 감소율을 보이는 성과를 거두었다.

최근 3년('13~'15) 평균 특보일수당 폐사두수 대비
'16년 변화율



최근 3년('13~'15) 평균 대비 올 여름 발생한 폭염특보일수 당 가축폐사두수 변화율



전북 농업인이 즐거운 기상기후서비스

전라북도과 14개 시·군 지역기상담당관
기후서비스과 농업인기상정보서비스팀
(오춘기, 마재준, 황인우, 송유화, 김지연, 이다경)



“

전라북도는 드넓은 호남평야를 중심으로
오천년 이상 농업의 중심지였으며,
현재, 전라북도 도정의 제1키워드가 ‘농업’이다.
전주기상지청에서는 이러한 전라북도의 농업정책에 부응하는
특화된 농업기상서비스 제공을 위해
농업인기상정보센터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



활동요약

농업인 기상정보서비스 개념 정립

작물중심*에서 사람중심*으로 농업기상업무 패러다임 전환

* 작물중심 : 병충해 예방과 다수확이 목적인 농작물 생육과정의 기상정보 서비스

* 사람중심 : 영농현장의 농업기상 리스크 분석 및 활용정보를 생산하고 농산물 생산과정·유통과정, 레저, 여행, 관광 등 농업인의 삶 중심, 동선 중심의 기상정보서비스

전라북도 농업인기상정보센터 구축 및 서비스 시행

농업인을 위한 양방향 소통채널 ‘들에서 콜’* 서비스 운영

* 들에서 콜 : 전북 영농현장(논, 밭, 축사 등)에 필요한 가치기상정보 제공 및 농업인 기상상담 소통채널

임업인을 위한 양방향 소통채널 ‘산에서 콜’* 서비스 운영

* 산에서 콜 : 전북 산림현장에서 활용되는 가치기상정보 제공 및 임업인 대상 기상상담 소통채널

관련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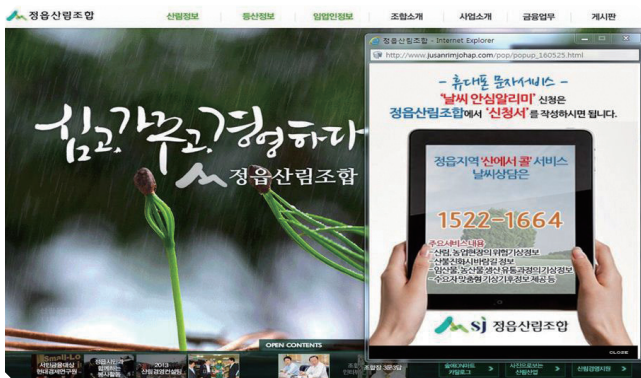
- ❖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조 4항
 - 농업기상조사·정보의 발표에 관한 사항(전주기상지청의 경우만 해당)
- ❖ 기상업무규정 제15조3(기후서비스과)
 - 농업기상조사·정보의 발표에 관한 사항
 - 지역 맞춤형 기상정보 활용서비스 개발·운영 및 확산에 관한 사항

전라북도 농업인기상정보센터 구축

- ❖ 전주기상지청은 농업과 산림현장에 필요한 양방향 맞춤형 기상기후정보서비스 제공 및 상담(기상컨설팅)을 통한 서비스 확대가 필요하였다.
- ❖ 이에, 논·밭·산림 등 작업현장의 안전한 활동과 농산물의 생산·유통 등 농업경영에 필요한 가치기상정보 지원으로 농업인에게 기쁨을 주는 전북지역 맞춤형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농림업인을 위한 양방향 소통채널 운영

- ❖ 전라북도 농업인기상정보센터에서는 전라북도 농업(경영)인들에게 영농현장의 안전, 생산, 경영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라북도 농업인 맞춤형 기상서비스를 운영하였다.
- ❖ 농림업인 맞춤형 상담서비스 ‘산에서 콜’과 ‘들에서 콜’ 서비스는 ‘작물중심’에서 ‘사람중심’의 기상기후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서비스 대상은 정읍시(산림조합)와 김제시(백산면) 농림업인을 대상으로 6월 29일부터 주 3회 이상, 1회당 100명을 대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 농업인기상정보센터 운영을 통한 전북 농업인 기상기후정보서비스를 통해 논, 밭, 산림 등 작업현장의 농업기상재해 사전 예방 및 안전한 영농활동 지원하였고, 농산물 생산 및 유통과정의 부가가치 정보지원으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였다.



‘산에서 콜’ 서비스(정읍산림조합 팝업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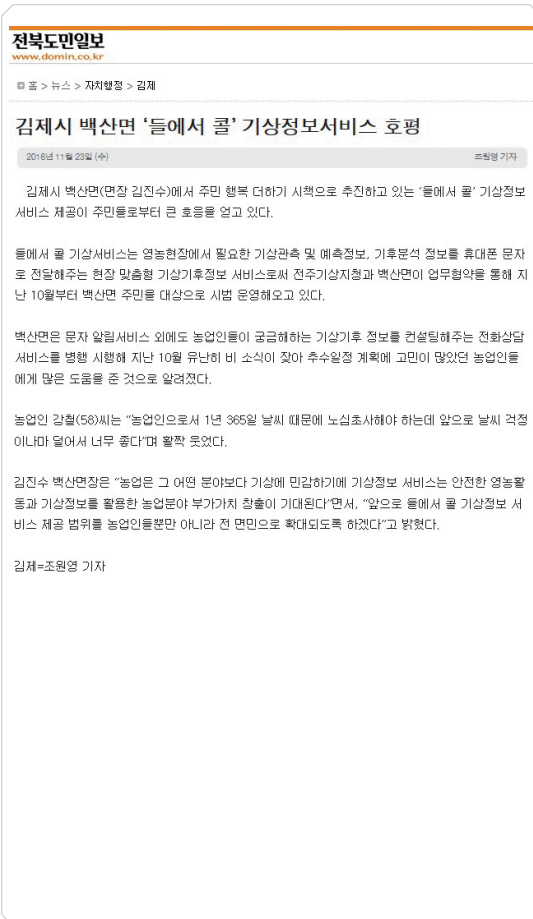
‘들에서 콜’ 서비스(리플릿)

농업분야 특성화 연구사업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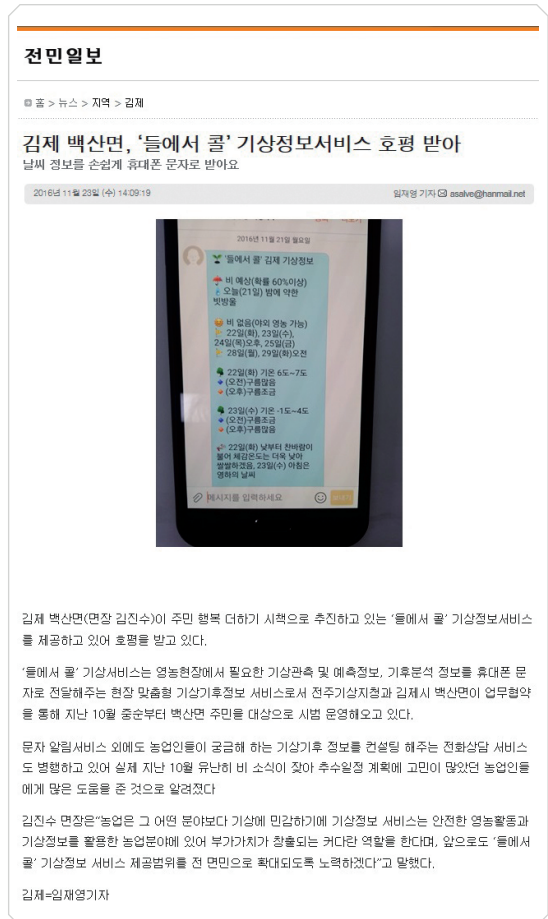
- ❖ 2016년 지역기상융합사업으로 ‘전라북도 농업기상 표준관측자료 생산 및 서비스 개발’ 과제를 추진하였고, 농업인을 위한 기상기후정보서비스 시스템을 개발하여 2017년에 기술이전을 추진하고자 한다.

‘들에서 콜’기상정보서비스 호평 받아

- ❖ 김제시 백산면 주민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들에서 콜’ 기상정보서비스 제공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 ❖ 들에서 콜 서비스는 영농현장에서 필요한 기상관측 및 예측정보, 기후분석 정보를 휴대폰 문자로 전달해주는 현장 맞춤형 기상기후정보 서비스로서 전주기상지청과 백산면이 업무협약을 통해 10월부터 백산면 주민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해 오고 있다.
- ❖ 농업인 강철(58)씨는 “농업인으로서 1년 365일 날씨 때문에 노심초사해야 하는데 앞으로 날씨 걱정이나마 덜어서 너무 좋다”며 활짝 웃었다.



전북도민일보(11.23.)



전민일보(11.23.)



전북지역 기후변화 대응지원 서비스

전라북도과 14개 시·군 지역기상담당관
기후서비스과 기후변화이해확산팀
(김상수, 김미옥, 방명아, 성금란, 한동영, 백정은)



“

지역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전라북도의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 있는 기후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주기상지청의 역할은 더욱더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유관기관과 소통협력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기후변화과학에 대한 이해 증진에 노력하였다.

”

활동요약

지역 기상기후서비스를 위한 지역기상담당관 활동 운영

기상기후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협업 및 의견 수렴을 위해 지역 순회 유관기관 업무회의 및 간담회를 추진하였다.

유관기관과의 소통의 장 마련 및 기후서비스 사업 발굴

전북지역 기후변화 간담회, 전북지역 기후서비스 포럼, 기후정책 및 기후이슈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지역 기후변화과학의 이해와 대응, 농업인이 원하는 기상기후정보서비스 방향, 기후변화 대응정책 토론, 지역 기상기후이슈정보 및 대응정책 등에 관해 기후변화에 따른 현장 중심의 기후서비스 사업 발굴 추진에 노력하였다.

기후변화 공감체험 교육 및 홍보활동 강화

기후변화 이해확산 간담회를 통한 교육, 찾아가는 기상·기후 과학교실 운영, 기후변화 홍보 및 청소년 진로체험 부스 운영, 기상기후사진전 등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기상청의 업무를 소개하였다. 또한, 국립전북기상과학관 콘텐츠를 활용한 '해 보다 기상인' 체험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이해 제고 및 청소년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지역 기상기후서비스를 위한 지역기상담당관 활동 운영

- ❖ 지역기상담당관 운영을 위한 기상기후서비스 업무회의 및 간담회를 4회 추진하였다. 대상은 정읍시 이장단 및 고창군 관련업무담당자, 남원시·장수군·진안군·임실군농업기술센터 업무담당자, 군산대학교 해양방재업무 담당자 및 지역 해양경비안전서 관계자, 김제시 및 익산시 관련 업무담당자 등으로 관심과 호응이 높았다.
- ❖ 주요내용으로는 기상기후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협업 및 발전방안을 토의하고, 지역기상담당관 전문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지자체와의 융합서비스 구현 및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하여 논의했다.



정읍시 이장단



장수군농업기술센터



익산시청



군산해양경비안전서

유관기관과의 소통의 장 마련 및 기후서비스 사업 발굴

- ❖ 전북지역 기후변화 간담회(5.25.)를 개최하여 관계기관 협력과 소통의 장을 통해 기후변화에 따른 현장 중심의 기상기후서비스 방안 의견 수렴 및 국립전북기상과학관의 시설을 소개하였다.
- ❖ 전북지역 기후서비스 포럼(6.23.)을 개최하여 기후변화시대 전라북도 농업분야 맞춤형 기상기후정보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해 농림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 농업인이 원하는 기상기후정보서비스 방향'에 대해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 ❖ 기후정책 및 기후이슈 설명회(10.7.)를 개최하여 기후스마트 농업 등 기후변화 대응 정보 공유의 장을 열어 전북지역 기후변화업무 협력 증진 및 지역 특성에 맞는 기후변화 정책 지원 방안을 모색하였다.



전북지역 기후변화 간담회



전북지역 기후서비스 포럼



기후정책 및 기후이슈 설명회

기후변화 이해확산 간담회 및 기상기후 사진전

- ❖ 지역 기후변화 이해확산 간담회 교육(11.10.)을 익산시 공무원 및 유관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익산시 영등시립도서관에서 실시하였다. 이러한 익산시와 함께하는 기후변화 소통 공감의 장을 통해 지역 기후변화의 이해와 대응, 위험기상의 이해, 지진의 이해 및 대처요령 등 교육을 실시하였다.
- ❖ 2016년 기상기후 사진전을 전주·남원·군산지역 등을 순회하며 4회 실시하였다. 사진전을 통해 방문객 및 지역민들에게 기상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기상기후에 대한 관심 유도 및 기상현상에 대한 공감의 장을 마련하였다.



기후변화 이해확산 간담회



기상기후 사진전(전주, 남원, 군산)

기후변화 공감체험 및 진로탐색체험

- ❖ 전라북도 정읍시에 위치한 국립전북기상과학관에서 기후변화 공감체험 및 '해 보다 기상인' 체험교육프로그램을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4회 실시하였다. 주요내용으로는 기후변화 알아보기, 기후변화 퀴즈풀기, 기후관련 교구 만들기 등 기후변화에 대한 이해 제고 및 청소년 진로탐색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 ❖ 찾아가는 기상기후 과학교실 운영(7.29.)을 통해 군산지역 초·중생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이해하기, 기후 관련 교구 만들기, 기후변화 홍보영상 상영 등을 통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였다.
- ❖ 기후변화 홍보 및 청소년 진로체험 부스 운영(10.27.)은 임실군 군민회관에서 임실지역 초·중·고생 및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기상청의 업무를 소개하여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기후변화 공감체험(정읍)



기상기후 과학교실(군산)



홍보 및 체험부스 운영(임실)



기상정보의 새 변신, 이젠 모두가 One하는 세상!

청주 지역기상담당관
기후서비스과 기상서기보 김윤철



“

2015년 7월 13일, 청주기상지청이 신설되었다.
기상대 시절을 기억하는 지역민이나 지자체에서는
청주기상지청이란 용어를 아직 낯설어 한다.
이런 낯설음을 지우기 위해 먼저 다가가고 기후서비스과만의 방식으로
지자체 그리고 국민과 소통을 시도하였다. 충북 지역기상담당관으로서
지역기상담당관에 대한 기후서비스 과만의 새로운 형태로의
접근방식을 소개하고, 2016년 지자체와의 소통일지를 공개하고자 한다.

”



활동요약

충북지역은 한반도의 중심에 위치한 수도권과 인접한 교통의 중심지이며, 11개 시군이 남북으로 뻗어있고, 지역에 따라 농업(남부), 공업(중부), 관광(북부)으로 특색 있게 발달하였다. 이러한 특징을 반영한 지역 맞춤형 기상기후서비스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지역의 특성 및 현황을 파악하고, 지자체에 기상기후서비스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각 지자체 담당자들과 협의를 통해 지역 맞춤형 기상기후정보를 개발하여 4개의 지자체 유관기관에 제공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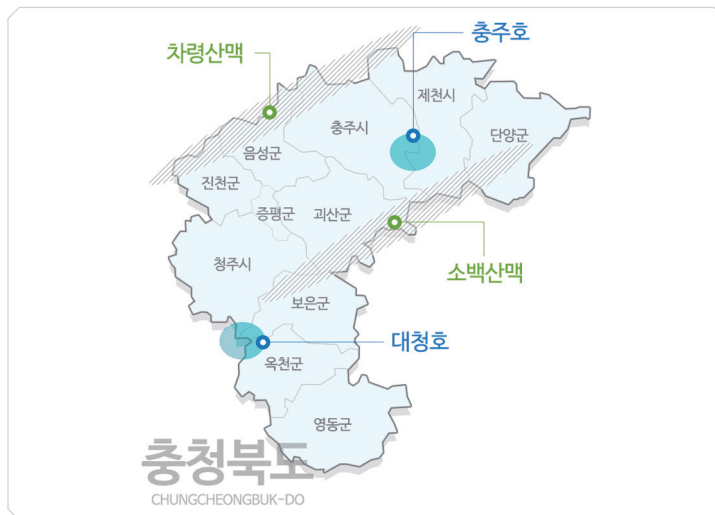
유행은 돌고 도는 것, 기상정보의 새로운 변신!!

지역기상담당관 활동을 하게 되면서, 기후서비스 과만의 방식으로는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곰곰이 고민을 해봤다. 충북지역은 자연재해가 타 지역에 비해 자연재해는 적은 편이라 방재 관련 기상서비스의 수요가 크진 않다. 이에 기후서비스 과만의 방식으로 지역 기후에 맞는 향토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한 개의 지자체에 하나의 서비스 즉, 맞춤형 기상기후정보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자연스레 향하게 되었다.

그동안 기상정보는 축제나 대회 등 각종 지자체 행사에 꾸준히 제공을 했다. 하지만 우리의 편의를 위해 많은 곳에 제공하던 기상정보 양식은 천편일률적으로 비슷하고 수요자들의 만족도는 낮았다. 이에 우리는 수요자들과 일대일로 상대하면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양식의 기상정보를 고민하였다. 그러기위해선 우리 지역의 지형을 알고 특화작물에 대한 정보도 알아야한다.

충청북도는 11개의 시군으로 이뤄져있는 국내에선 유일하게 바다와 인접하지 않는 행정구역이다. 또한 북부는 산악지대가 많고 기온도 서늘하나, 중부는 평지가 많은 편이다. 하지만 남부는 산악지대가 많고 기온도 상대적으로 따뜻한 편이다. 이렇듯 지역마다 기후조건이 달라서 주력산업도 많이 다르다.(북부: 관광, 중부: 농업, 공업, 남부: 농업) 각 지자체에서는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역 기후 조건에 맞는 특화작물을 내세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렇듯 기상기후정보의 수요도 많거니와 필요로 하는 기상기후정보가 다양하다.

이것이 우리가 「ONE지자체 ONE서비스」지역 맞춤형 기상기후정보를 추진하게 된 이유이다.



충청북도 지형도

소통(疏通)이 모여 대통(大通)을 이룬다.

우선 「ONE지자체 ONE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각 지자체 유관기관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알고, 우리의 업무를 알리는 것이 중요했다. 따라서 4월에 각 유관기관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기상기후서비스 발전간담회’를 개최하여 기상기후서비스에 대해 지자체 담당자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렇게 지자체와 소통을 통해 Needs를 파악 할 수 있었다..

간담회 이후 탄력을 받아 5월 초, 각 지자체로 공문을 통해 기상서비스 수요조사를 실시하였고 총 10건의 수요 요청이 접수되었다. 이 중에서 3건만 고르는 것은 상당히 괴로웠지만 빠른 서비스제공을 위해 어쩔 수 없이 골라야만 했고, 충주, 괴산, 보은 이렇게 권역별로 1개 시군이 선정되었다.

6월에는 해당 지자체에 수차례 찾아가 얼굴을 맞대어 기상기후정보의 양식에 대해 자문을 구하고 기상정보의 디자인에 대해 수차례 내부 토의를 통해, 7월부터 3개의 기상기후정보(보은, 괴산: 농업, 충주: 농업, 관광)를 생산하여 4개의 유관기관(충주 2곳: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산과)에 정식으로 제공할 수 있었다. 그간의 고생을 한꺼번에 날려버리는 순간이었다.



기상기후서비스 발전간담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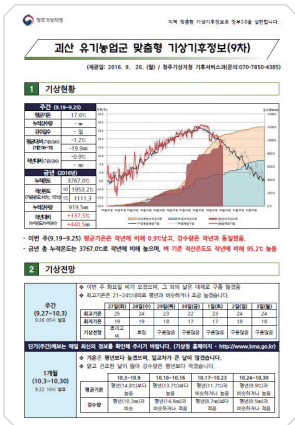
보은군 농업기술센터 방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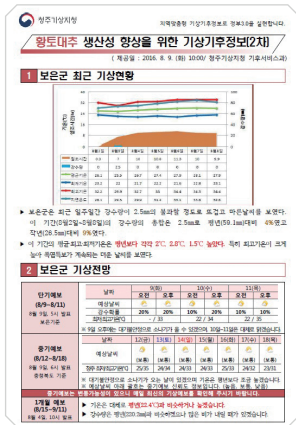
충주시 농업기술센터 방문

긍정적인 출발, 하지만 시작은 지금부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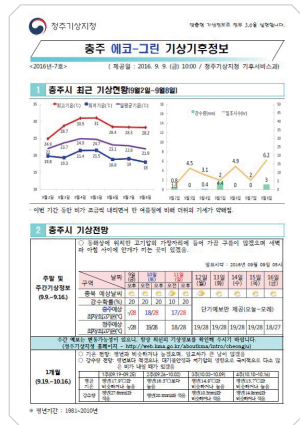
7월이 되어 기상기후정보를 각 지자체 유관기관 홈페이지, 메일을 통한 직접 전달, 우리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였다. 매 주 특정일에 맞춰서 정보를 생산하는 것 쉽지 않았다. 하지만 기상정보에 의지하는 농민들을 생각하며 힘을 냈고 무사히 마무리 할 수 있었다.



괴산 맞춤형 기상기후정보



황토대추 맞춤형 기상기후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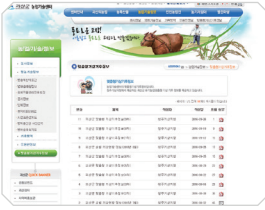


충주 맞춤형 기상기후정보

사실 기상정보 제공하는 것으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수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얼마나 큰 도움이 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길은 없다. 하지만 9월 28일 충북 기후서비스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통해 유관기관 관계자의 의견을 통해 관계자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고, 유관기관 설문조사를 통해 활용을 제대로 하지 못한 1군데를 빼고 3개의 기관에서 긍정적(계속 받아보겠음)인 의사를 표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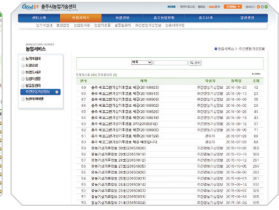
충북기후서비스강화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



괴산 맞춤형 기상기후정보 표출
홈페이지



보은 맞춤형 기상기후정보 표출
홈페이지



충주 맞춤형 기상기후정보 표출
홈페이지

대국민 대상으로 진행한 맞춤형 기상기후정보 인지도 설문조사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전체 응답자중 33%가 알고 있고, 나머지는 아직 모른다고 대답하였다. 이는 기상기후정보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아직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 기상기후정보를 계속 받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전체응답자의 93%나 되었다. 이것은 기상기후정보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필요하다고 여기고 수요가 있다는 것으로 해석되며, 기상기후정보에 대해 지역민의 100% 알 때까지 지역 고유의 아이덴티티에 맞춘 기상기후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청주시청에서는 지속적으로 소통을 해나갈 것이다.

지역언론의 뜨거운 관심

하루는 「ONE지자체 ONE서비스」지역 맞춤형 기상기후정보에 대해 어떻게 알았는지 지역신문기자가 전화를 와서 기관장(청주시청장 하창환) 인터뷰를 요청하였다. 당시 신문기사 제목이 “지역사회 맞춤형 기후서비스 제공”으로 지역 언론에서는 우리 서비스에 대해 많은 관심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심지어 7월 첫 맞춤형 기상기후정보를 작성하고 있을 때 지역 언론기자에게 전화가 와서 “지역 맞춤형기상정보서비스 오늘부터 시작한다고 해서 연락했습니다.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 알려 주실 수 있나요?”라며 정보가 나가기 전부터 연락이 왔다. 평소 이런 거의 없어 이때는 정말 당황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내심 뿌듯한 마음이 들었다. ‘우리 기상정보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는구나,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에 사명감에 불타올랐다.



맞춤형 기상기후서비스 제공 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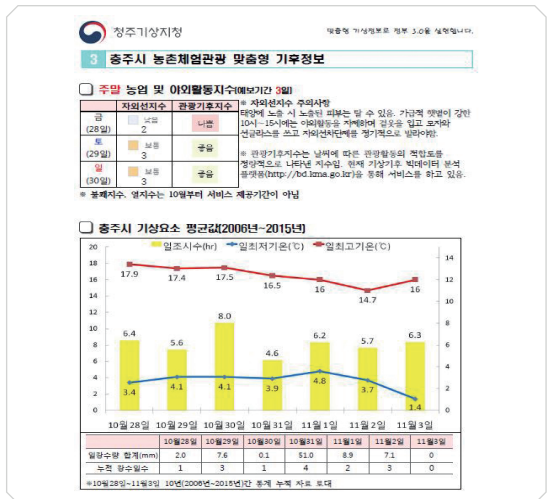
하창환 청주시기상청장 인터뷰 기사

에피소드

사실 이번 서비스 제공에 대해 지자체에서는 부정적인 시각이 다소 존재했다. 기존의 정보와 중복이 되고 불필요한 일이 늘어난다는 선입견 때문에 일부러 만남을 기피(?)하는 경우도 있다. 6월 충주 농업기술센터에 찾아가셨을 때 약속했던 과수연구팀 담당자는 부재중이었다. 하지만 옆에 있던 테마농업팀장과 기후서비스에 관해 설명하면서 최근 농촌체험관광이 활성화가 되고 있다는 정보를 얻었다. 이를 하나의 주제로 접근하여 정보를 내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랐고 기상기후 빅데이터 플랫폼의 맞춤형 관광기후지수정보를 더해 이 지자체에 제공할 수 있었다. 이렇듯 새로운 발견은 실패와 우연을 통해 이뤄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이처럼 우리 기상청도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새로운 시도를 계속 하면 언젠가는 결실을 맺을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레 생각해본다. 앞으로도 우리 청주시기상청은 시류를 타지 않는 아이디어를 통해 새로운 시류를 창조해 나갈 수 있는 기후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기상기후 빅데이터 플랫폼 홈페이지



충주 기상기후정보 2페이지(관광기후지수 정보)



충청북도 날씨 협업 와우! WOW(Weather CO-Work)

충청북도 지역기상담당관
관측예보과 기상주사보 김정수



“

청주기상지청은 2015년 6월 청주기상대에서 승격하면서
관측예보과에서는 충청북도 11개 시·군에 대한
예·특보, 방재기상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충북 지역민은 청주기상지청이 한 단계 격상된 만큼
기존의 기상정보에서 더욱 향상된 정보를 바랄 것이다.
우리는 이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지역기상담당관으로
책임과 소명을 갖고 오늘도 고민한다.
안전 충북! 행복 충북!

”

★ 활동요약

2016년은 청주기상지청이 새로운 도약을 한 첫 해로 충북지역민의 안전과 행복한 생활을 위하여 유관 기관과 협업체계를 만들었다. 우선 각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관측자료를 공유하여 예산 절감 및 기상 관측망을 확대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또한, 충북 방재기상을 선도하는 청주기상지청을 만들기 위하여 방재기상업무협의회, 충북방재기상동아리 「오늘도 맑음」을 운영하였다. 이를 통해, 충북 방재기상서비스의 중추적인 역할로 신속하고 정확한 기상정보를 제공하여 충북지역 기상해재 공동대응 체계를 마련하였다.

소통의 시작, 내 지역 알기~

충청북도는 한반도의 중앙에 위치하여 우리나라에서 바다에 접하지 않은 유일한 내륙도로, 북동쪽에 태백산맥, 동쪽에 소백산맥, 북서쪽에 차령산맥이 지나며 서쪽은 구릉지와 평야로 되어 있는 남고북저의 거대한 분지 지형을 형성하고 있다. 충청북도의 북쪽에는 충주호가 남한강으로 흐르고, 남쪽에는 대청호가 금강으로 흐른다. 한반도의 중심에 위치한 충북지역은 교통 물류의 중심 지역으로 경부선, 중부선 등 6개 노선의 고속도로와 청주국제공항이 위치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충북지역에서 적설, 안개는 다른 기상현상보다 위험기상으로 분류된다.

활동 1. 날씨 협업 WOW의 특별한 첫 걸음

관측자료 공동활용을 통한 선제적 기상감시로 같이의 가치 UP!

- ❖ 충북 지역의 관측 공백 해소를 위하여 청주시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관측장비 외에도 유관기관의 다양한 관측장비 활용을 방안을 조사하였다.
 - * 청주시청 : 광학식 적설계, CCTV 및 적설판 14소 운영
 - * 한국도로공사/국토관리청 CCTV : 29소 / 14소 운영
- ❖ 안전 충북! 행복 충북! 실현과 선제적 기상감시 강화를 위한 적설관측자료 및 안개감시 CCTV 공동 활용을 위한 업무협의를 실시하고, 한국도로공사 및 청주시의 적설 및 안개 관측자료 공유를 위하여 공동활용시스템을 2016년 1월 구축하였다. 이를 통해 장비 중복 설치 예방으로 예산 절감 효과를 창출하였다.
 - * (안개) 예산절감액 : 2억 6000만원, (적설) 예산절감액 : 1억 1000만원



적설 종합감시



안개 다발구역 CCTV 화면



자료 공동 활용

- ❖ 유관기관의 기상관측장비 담당자를 대상으로 관측자료 품질 및 공동 활용 효용성 제고를 위한 이해 확산 순회교육을 충청북도 및 11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1.18.~22.)하였다.



자료 품질향상 방안



시스템 표출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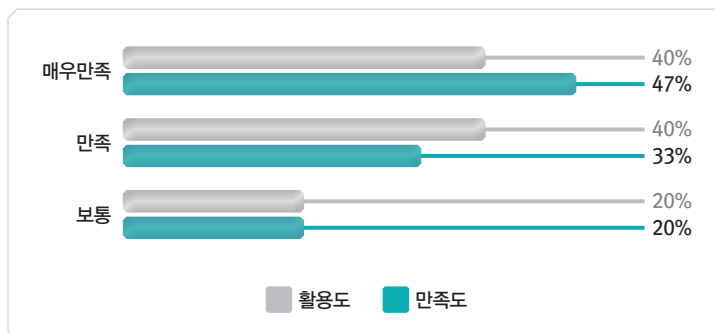


장비 운영 방안

활동 2. 날씨 협업 WOW의 안전한 두 걸음

SNS 양방향 소통서비스를 통한 방재 골든타임 확보로 지역민의 안전 KEEP!

- ❖ 2015년 겨울철 방재기상업무협의회('15.11./9개 기관)에서 대설, 특보 등 정보 전달 및 소통체계 개선을 위한 온라인 네트워크 개설이 요청되었다.
- ❖ 이에, 2015년 12월 SNS BAND를 활용한 지역 방재담당자간의 상시 소통 창구를 위해 방재기상동아리 BAND를 개설하였다.
 - * 가입기관/인원 : 충청북도 및 14개 시군, 충북 소방본부 등/69명
- ❖ 동아리 구성원들로 하여금 「방재기상동아리」 명칭을 만들어 모임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 소속감을 높이고자 BAND 명칭을 공모하였다. 동아리 회원의 적극적인 공모와 투표로 동아리 명칭을 “오늘도 맑음”이 선정되었다.
 - * 「오늘도 맑음」 : 긍정적인 의미로 좋은 날씨를 기대하며..
- ❖ 충북방재기상동아리 「오늘도 맑음」에 대한 실효성, 서비스 만족도 및 활동 개선을 중하여 설문 및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총평으로 능동적 서비스 제공으로 신속한 정보 제공과 우호적 협력 관계 형성이라는 대다수의 긍정적인 피드백을 보였다.
 - '16.3.~4./외부기관 회원 42명 대상
 - * 활용도(매우만족 40%, 만족 40%, 보통 20%) 만족도(매우만족 47%, 만족 33%, 보통 20%)



활동 3. 날씨 협업 WOW의 2인 3각!

방재기상업무에 대한 정보공유, 소통, 교육을 위한 우리의 만남은 ~ing!

- ❖ 여름철과 겨울철 위험기상으로 충북 지역의 기상재해 예방의 효율성 제고와 방재 기관과의 의견 교환을 통한 신속하고 정확한 기상정보 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방재기상업무협의회를 운영하고 방재기간을 앞두고 여름철(5.26.)과 겨울철(11.29.)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여름철 방재기상업무협의회



겨울철 방재기상업무협의회



보도자료 배포

- ❖ 청주시자치청 방재기상서비스와 방재유관기관의 재난안전관리 업무의 원활한 공유를 위해 소통 워크숍을 상반기(4.28.~29.), 하반기(10.21.) 2회 개최하여 실무자 간 소통의 장을 만들었다.



실무자 문화 탐방



소통의 시간



전문가 특강

- ❖ 충북 방재기관 담당자의 기상업무에 대한 이해와 위험기상으로 인한 자체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 교육의 기회(6.28.)를 제공하였다.



실무자 교육 환영식



위험기상감시 대응법



충북기상센터 견학

향후 계획

2016년 충북의 지역기상담당관으로 방문, 교육, BAAND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지자체 담당자들과 업무를 수행하였다. 소통의 기회가 많아지고 보니 더욱 자연스럽게 서로의 업무를 공유하며 상호 발전될 수 있는 정보와 기회를 공유할 수 있었다. 청주기상지청에서 충북지역을 총괄하면서 물리적으로 먼 지역의 담당자들과는 기회를 적었다. 2017년도에는 지역기상담당관 활동을 청주기상지청이 있는 지역에서뿐만이 아닌 권역별 중심지역에서 자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한다. 이를 통해 좀 더 안전 충북! 행복 충북! 실현에 한걸음 다가가리라 본다.

2016년도 지역기상담당관 활동 우수사례집

지역기상담당관은
위험기상 감시와 기후변화 지킴이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16길 61
www.kma.go.kr / www.climate.go.kr 전화 : 02-2181-0398